

남원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 성도의 변

4 1996

특별 부록 : 어린이란







**표지 설명:**

네델란드 헤이그의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세미나리에 참석하여 함께 하는 것이 강중을 얻고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뒷표지 윗쪽 제네트 클레이베그 15세

아래쪽 데니스 카트 13세

“네델란드의 개화”, 34쪽 참조

사진 촬영 브라이언 케이 켈리와 마빈 케이 가드너

**어린이란 표지 설명:**

예수님은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을 잘 알고 돌보듯 우리를 알고 돌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불린다. 또한 예수님은 다른 많은 훌륭한 인물들로도 알려져 있다. 5쪽을 펴기 전에 여러분이 그 중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읽는다.

이름으로를 읽는다.  
그림 밑 파스, 선한 목자

##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 성신의 은사 - 확실한 나침반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2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 .....	10
부활 로버트 제이 매튜 .....	12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여인 .....	20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	
인격이 형성됨 제럴드 앤 렉드 .....	26
찬송가에 담긴 소망 아넷트 피 보웬 .....	44
지상의 평화 로버트 이 웰즈 장로 .....	46

## 청소년란

물론 메시지: 그분은 새로운 생명을 주심 .....	9
이곳을 기억하라 크리스탈 토마스 .....	24
네델란드의 개화 마빈 케이 가드너와 브라이언 케이 켈리 .....	34
봉사 활동 태머리 리썸 배일리 .....	40
조각 에이 조우 잭슨 .....	42

## 정기 특별 기사

애독자 편지 .....	1
방문 교육 메시지: 일용할 양식 .....	25

## 어린이란 (별책 부록)

물문경 이야기: 니파이가 큰 권세를 얻음 .....	2
탐험: 예수님의 이름 도로서 리온 .....	4
친구에게: 부활절 이야기 .....	8
친구가 친구에게: 제이 벨라드 워시번 장로 .....	10
함께 나누는 시간:	
숙고하고 기도하고 귀기울이라 캐런 애쉬튼 .....	12
이야기: 할머니의 정원 엘마 제이 에이츠 .....	14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 판 출판물임

대편집장: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에스 문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올 톰 패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엘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라,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해럴즈, 제프리 알 윌슨,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잭 에이치 고슬린드

고문: 스펜서 제이 콘다, 올 라이오넬 캔들리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나이튼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올 로야브그

편집팀: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올 빌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마텔

편집인: 보조: 아리안나 디엔 워커

편집/제작부장: 매리언 마틴달

제작보조: 베스 데일리

편집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디자인팀: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위시카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켈먼

디자인: 제리 록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관리: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테니스 커비

매뉴얼: 맥스웰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마케팅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361호, 제33권, 제4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간-3166  
발행일: 1996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원  
편집인: 한상의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1996년 재단 법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용이 승인-8/94 번역 승인-8/94 APRIL 1996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0984 320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 1차(일본 등) 12,000원, 2차(말리핀, 중국 등) 16,200원, 3차(중동 등) 23,200원, 4차(중남미 등) 28,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 price is \$9.00 per year.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Box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The SOUNGDO-UI POT, is published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 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시모어어, 스웨덴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  
격월간: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 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러시아어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Box 26368, Salt Lake City, Utah 84126-0368, U.S.A.

가족의 목표

저희 가족은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리아호나에는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기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잡지는 매일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간증과 지식을 키워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하나씩 기사를 읽는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매일마다 그것을 읽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우리 가족은 함께 모여 그 날의 일과를 마치고 다시 함께 모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그 날 선택한 기사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기쁜 일입니다.

수잔나 멘도사  
캘리포니아 허밋 스테이크  
라모나 와드

참된 해결책

우리는 가족이 함께 데 스테른(독일어 판)을 읽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참조하기 위해 이 잡지를 모두 모아 둡니다. 그 잡지는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해 참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우리는 어린이란도 즐겨 읽는데, 저희 딸은 모든 어린이란을 모아 둡니다.

루스 기슬러  
스위스 쥐리히 스테이크  
빈테르 와드

영감을 주는 잡지

저는 10년 전에 침례 받은 후부터 계속 리아호나(영어 판)를 구독해 왔습니다. 그 잡지는 저의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고 또 다른 나라에 사는 성도들

에 대해 읽을 때, 제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알바로 알 타디아  
필리핀 카트발로간 지방부  
카트발로간 제1지부

적절한 순간에 도움을 줌

저는 1975년에 침례 받은 이래로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로 여겨 왔습니다. 그 잡지는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 저를 고양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종종 제가 자녀들에게 권고하고, 그들을 구세주께 더 가까이 데려가려고 노력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클라우디오 나바레테 지  
칠레 비아 알레마나 스테이크  
리마체 와드

크게 영향을 미침

저는 우리가 매달 가장 훌륭한 잡지에서 얻었던 귀중한 가르침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그 기사들은 많은 말일성도들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들이 제게 유익을 주었음을 압니다.

저는 올해 특별히 세계의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가진 복음에 대한 사랑에 관해 읽음으로써 세미나리 교사라는 부름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책임감을 갖고 시온의 청소년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읽으면서 깊이 감동 받았습니. 청소년에 관한 기사는 저의 학생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됩니다.

에스트레이아 데 라 누베 바르사이오  
에과도르 쿠엔사 지방부  
아소케스 지부







## 성신의 은사-확실한 나침반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대관장단 제2보좌

**다**시 북반구에 봄이 돌아왔습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있습니다. 잔디가 자라며, 잎들이 돌아나고 있습니다. 과수 나무는 꽃을 피우려 가지개를 쳐고 있고, 양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부활절을 맞이하여 구세주께서 사망의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것을 모든 기독교인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 보혜사

그 옛날, 구세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시간을 위하여 그 분이 택하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던 것은 참으로 의미 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앞에 커다란 고통이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번민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마가복음 14:34) 그분은 형언할 수 없는 고뇌를 각오하고 계셨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침례 후에  
권능을 가진 자의 안수에 의하여  
받게 됩니다... 성신의 은사를  
소유한 자들은 더 밝은 빛과 더  
큰 간증을 받게 됩니다.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열한 사도들은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느끼고는 있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주께서 어디론가 가실 것을 알았으나 그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한복음 14:18, 26)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보혜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 지를 성신의 권세와 은사로 알 수 있다고 간증드립니다.

### 하나님의 영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신이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의 위안의 영은 우리가 일할 때나 놀 때나 쉴 때나 24시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강화시켜 주는 그 영향력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인간들이 교통하는 매개체임을 알아야 한다.”(기이한 업적, 98쪽) 모든 인간은 때때로 양심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 가르침을 받습니다. 욥은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충명을 주시나니”(욥기 32:8)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말씀했듯이, “이 영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교화되고 선한 자 뿐만 아니라 악한 자, 예지 있는 자와 무지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등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빛을”(복음교리, 57쪽; 교리와 성약 88:3~13 참조) 받아들이는 방편입니다.

### 성신의 은사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는 달리, 성신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



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신의 영향은 성신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한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성신과 성신의 은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87쪽)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 밖의 많은 사람들도 복음의 참됨을 확신시켜 주는 성신의 계시를 받습니다. 오순절에 참석한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넬료도 침례를 받기 전에 성신을 받았습니다.(사도행전 2:1~12; 10:30~44 참조) 구도자들이 물론경과 복음 원리에 대한 간증을 얻는 것이 권능을 통해서입니다.

성신의 은사는 회개하여 합당하게 된 이후에 주어집니다. 이것은 침례 후에 권능을 가진 자의 안수에 의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성신에 의해 영적으로 감동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사도행전 2:38) 성신의 은사를 소유한 자들은 더 큰 빛과 간증을 받게 됩니다. 성신은 진리를 증거하며,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성을 깊게 심어 주어, 세상의 어떤 권능과 권세도 그러한 지식으로부터 그를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니파이서서 31:18 참조)

### 확실한 나침반

물론경과 성경 및 그 외 경전은 현대 예언자의 인도와 더불어 참다운 행동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성신의 은사는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요 양심의 음성이요 도덕의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이 나침반은 우리들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행과 자신감의 결여로 끌고 갈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성과 명예와 정직성과 합당성과 예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던 많은 표준과 가치관, 서약 및 의무

가 조금씩 조금씩 침해되고 버림 받아 왔기 때문에 확실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른 여러 가지 가치관 중에서 순결, 부모에 대한 공경, 결혼 생활에 대한 충실함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표준 등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고 해도, 계속 약화되고 있는 가치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 악은 흔히 서서히 받아들여짐

토마스 알 로완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표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가이며 해설가인 맬콤 머저리지는 개구리들이 산 채로 가마솥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삶아져 죽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구리들은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그 개구리들이 가마솥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이 미지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 온도가 아주 서서히 올라가고, 물은 조금씩 조금씩 데워졌습니다. 온도가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조금씩 올라갔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꾸 새로운 환경에 순응하여, 결국은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머저리지 씨가 지적한 것은 개구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것이며 또 악이 갑자기 밀어닥치는 충격적인 것이 아닌 한, 우리가 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도덕한 것도 그것이 전에 이미 맞아들인 것보다 더 나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내셔널 프레스 클럽 포럼)

이 점진적인 과정은 고대 예언자들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 니파이는 우리에게 [사탄이] 인간의 자녀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켜 “선한 것에 대하여 성을 내도록 책동하며, 많은 다른 자들을 달래어 육욕의 안식처를 쫓게 하며 이르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되리라.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며 모든 것이 잘되리라”고 하리니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니파이



이서 28:20~21)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지옥으로 인도되어 가는 것을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알렉산더 포우프는 악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하여 비슷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악이란 무서운 괴물 같아서  
처음 볼 때는 미워하지만  
보고 또 보면 낮이 익어서  
처음엔 참고 그 다음은 붙잡히 여기고  
그 다음엔 포옹을 한다.  
(“사람에 대한 수필”, 서한 2, 217~220열)

### 성신은 우리를 강화시켜 줄 수 있음

성신의 은사는 우리가 유혹을 받는 순간에 복음의 율법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것을 물리치도록 돕습니다. 비 에 이치 로버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혹의 순간에 성령의 속삭임을 듣는다면… 이 복음의 율법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복음: 그것의 첫째 원리에 대한 설명 및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10판, 솔트레이크시티:테저렛 출판사, 1965년, 191~192쪽)

저는 젊은이들이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이 특별하고 뛰어난 성신의 은사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혜사는 영적인 존재이며 신화의 일원입니다. 교리와 성약은 왜 성신이 영적인 존재인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나니, 아들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이 없으시고 다만 영적 존재이시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성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느니라.”(130:22)

성신의 은사는 “성신의 권세와 진리의 빛”(복음 교리, 61 쪽)을 갈망하고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성신의 위안의 영은 우리가 일할 때나 놀 때나 쉴 때나

24시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강화시켜 주는 그 영향력은 일년 내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탱시켜 주는 그 영향력은 기쁨 때나 슬픔 때나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습니다.

### 보혜사는 평안을 가져다 줌

저는 성신의 영이 이 불안한 세상에서 내적인 평화를 위한 가장 위대한 보증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화학 물질이나 지상의 어떤 물질보다 마음을 밝게 해주고 보다 큰 행복감을 갖게 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경을 안정시켜 주며,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 보혜사는 우리가 향상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절박한 위험에 대해 경고해 주며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계시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보다 선명하게 되고 보다 예민하게 듣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도록 우리의 오관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해줄 방편입니다.

영, 곧 성신은 우리가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성신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처나 부정한 대우를 받았던 기억으로 시간을 소모하기보다 더 위대한 것을 찾아 전진해야 할 때가 옵니다. 언제나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게 되면 당연히 성령을 받는 데 장애가 됩니다. 그것은 평안을 키워 주지도 못합니다.

### 확신의 증인

성신은 또한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성신의 영은 하늘의 것들을 증거하는 확신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영을 통해 인간의 마음속에 강한 지식이 스며들며, 사람들은 모든 의심과 의문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 성약이 약속의 성령에 의해 인봉될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 그러한 축복을 구하는 부부에게 위대한 축복이 쏟아지도록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로마서 14:17) 다른 곳에서 그는 참된 성도들은 “성령의 전”(고린도전서 6:19)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성신의 인봉의 권세

저는 성신의 인봉과 확증의 권세인 약속의 성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속의 성령에 의해 성약을 맺거나 의식을 받는 것은 하나의 계약이며, 이 계약을 통해 그 축복을 추구하는 자가 참되고 충실하면 그에 따르는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고리와 성약 76:50~54 참조)

예를 들면, 최고의 복음 의식인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 성약이 약속의 성령에 의해 인봉될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 그러한 축복을 구하는 부부에게 위대한 축복이 쏟아지도록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통해 그와 같은 결혼은 풍요롭고 온전해지며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 당사자가 각각 별개의 개체를 지킬 수 있으면서도 그들이 맺은 성약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휘감아 떨어질 수 없게 된 두 그루의 포도나무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동반자를 생각합니다.

약속의 성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복음의 의식과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모든 성약, 맹세, 서약 및 행해지는 의식들이 그 약속의 성령에 의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인봉되기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인봉은 불의에 의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속여서 인봉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축복 집행자의 고결성과 권능에 관계없이 축복이 인봉되지”(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II, 87쪽) 앎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의 성령에 의해 성약이나 의식을 인봉하는 것은 그 약속이 하늘과 땅에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즐겁습니다.



그러나 고결하고 충실하지만 아무런 기적도 받지 못하고 바라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위안을 받습니까? 그들의 위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바로 그니라]”(요한복음 14:18, 26)

간단히 말씀드려, 성신의 은사란 합당한 사람들이 성신을 받아 더 큰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굳건하고 영적인 권세입니다.

### 브리감 영에게 준 요셉의 권고

1847년 2월 브리감 영은 예언자 요셉이 꿈, 즉 시현으로 나타나자 그에게 같이 있어 달라고 간청하였던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 브리감 영은 요셉에게 흑시 형제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충실하며, 주님의 영을 지니면 영이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주의를 기울여 작고 고요한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왕국의 열매를 맺게 해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확신을 갖고 마음을 열어 두어서 성신이 그들에게 올 때에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예언자 요셉은 브리감 영에게 다음과 같이 부언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다른 영들로부터 주님의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은 그들의 영혼에 평안과 기쁨을 속삭일 것이며, 그들의 가슴으로부터 악의와 증오와 투쟁심과 모든 악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선을 행하며 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자가 되려는 소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브리감 영 역사 원고, 1846~1847년, 엘턴 제이 왓슨 편집, 솔트레이크시티, 1971년, 529쪽)

### 변치 않는 동반자

비록 우리가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리아, 마르다 등의 사람들처럼 구세주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해도 성신의 은사가 우리의 보혜사이자 확실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신의 인도 아래 영적으로 성장할 때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과 소속감과 정체감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간중 드립니다. 저는 또한 모든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도 성신의 영을 동반하게 하고 싶다는 사실을 전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빛과 진리와 순수한 예지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며, “성신은 변치 않는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며 [여러분의]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여러분의]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여러분]에게로 흘러 들어가”(교리와 성약 121:46)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품위를 지켜 왔던 많은 표준과 가치들이 버림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줄 확실한 나침반이 필요하다.

2. 그 확실한 나침반은 성신의 권세와 은사이다.

3.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통하여 행복과 평안을 얻기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알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으며, 압박한 위협을 경고 받고, 타고난 오관이 강화되며, 불안감을 극복하고 신앙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우리가 성신의 인도 아래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과 소속감과 정체감이 커지게 된다.



올론 메시지

# 그분은 새로운 생명을 주심



그분은 영적인 거듭남과 육신의 부활을 가져 온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  
(요한복음 11:25 참조)



#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통찰력과 권고

## 모든 것 중 가장 위대한 기적

“저는 저와 형제 자매들의 생활에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모든 것 중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여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라고 믿습니다. 저는 참으로 경이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얼마나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능자의 자녀들을 위해 그분의 권세로 가능했던 복음의 회복이야말로 참으로 놀랍고도 기이한 일입니다.”<sup>1</sup>



분을 상하게 할 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러한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은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sup>3</sup>

## 청소년들에게 주는 권고

“여러분은 훌륭한 젊은이들입니다. 거듭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세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더 잘 압니다. 여러분은 세미나리에 가서 주님의 것들에 관해 배웁니다. 여러분이 저희 세대보다 복음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

“여러분이 십대에 무엇을 하느냐로 어떤 삼십대, 사십대를 맞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sup>4</sup>

## 구세주와 친해짐

“우리의 젊은이들이 더욱 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 각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구세주의 속죄의 원리를 배우고, 세상의 구세주와 친숙해짐으로써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십시오.”<sup>2</sup>

## 결혼 이후

“결혼하면 서로에게 헌신적으로 충실하십시오. 이기심은 행복한 가정 생활의 큰 파괴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배우자의 평안과 복리와 행복을 우선으로 삼아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도 보다 높은 목표로 승화시킨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sup>5</sup>

## 합당성과 의로움

“제가 염려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망에 대한 합당성과 의로움의 상징이 되는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보다 더 예의 있는 복장을 갖추도록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또한 경전을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춘화를 멀리하십시오! 무서운 질병을 피하듯이 그것을 피하십시오! 그것은 치명적인 질병과 같은 것이며, 중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지배하여 거의 파멸할 때까지 움켜잡습니다... 이러한 잡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심야 프로그램들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

## 모성

“더욱 많은 여성들이 일터로 나가는 오늘날, 가끔씩 멈춰서 여성들이 행하는 봉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봉사는 자녀를 의와 진리 가운데서 키우고, 가르치고 고무시키고 격려하며 양육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녀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러한 것과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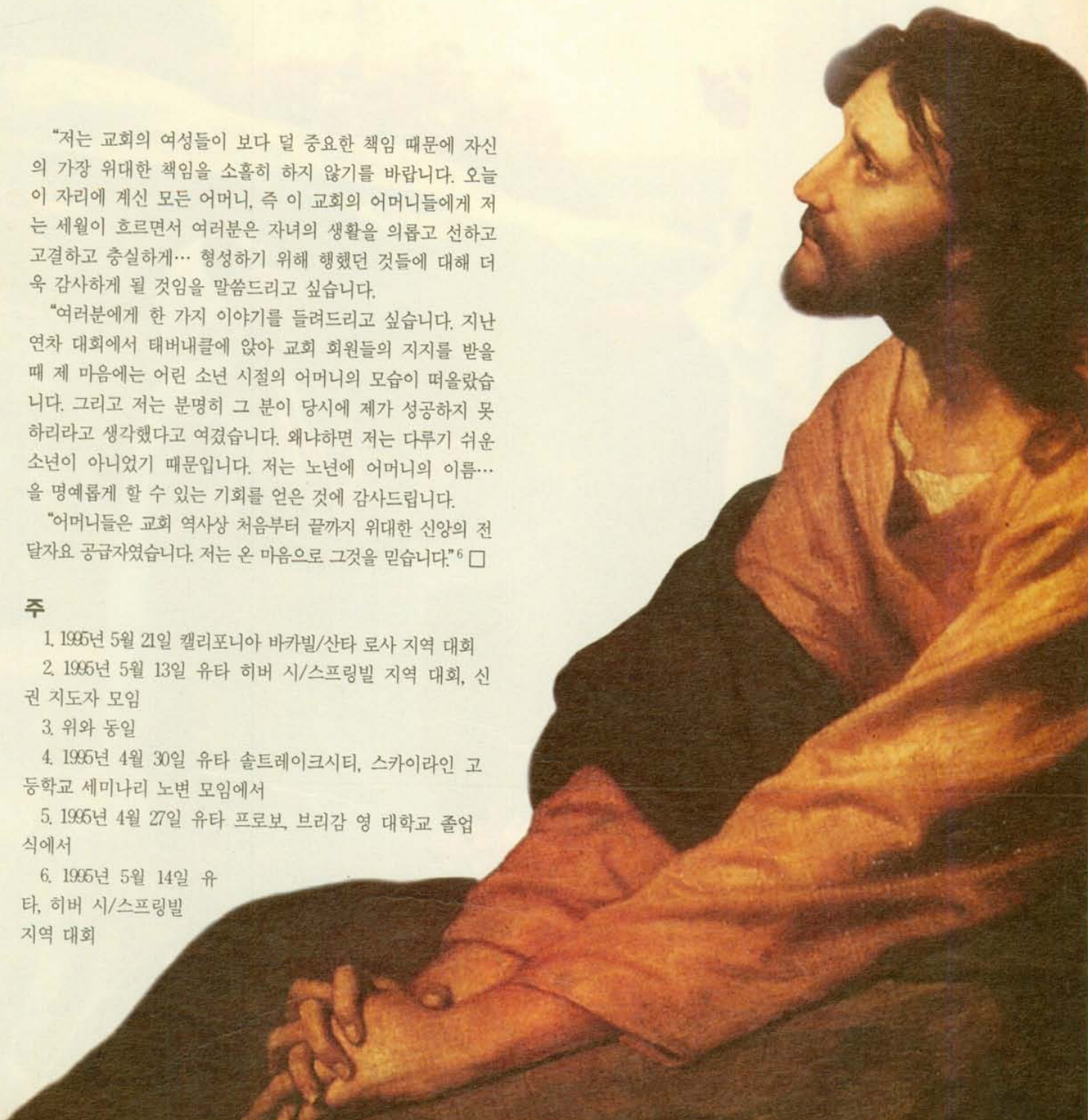
“저는 교회의 여성들이 보다 덜 중요한 책임 때문에 자신의 가장 위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 즉 이 교회의 어머니들에게 저는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은 자녀의 생활을 의롭고 선하고 고결하고 충실하게... 형성하기 위해 행했던 것들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태버나클에 앉아 교회 회원들의 지지를 받을 때 제 마음에는 어린 소년 시절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 분이 당시에 제가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루기 쉬운 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년에 어머니의 이름... 을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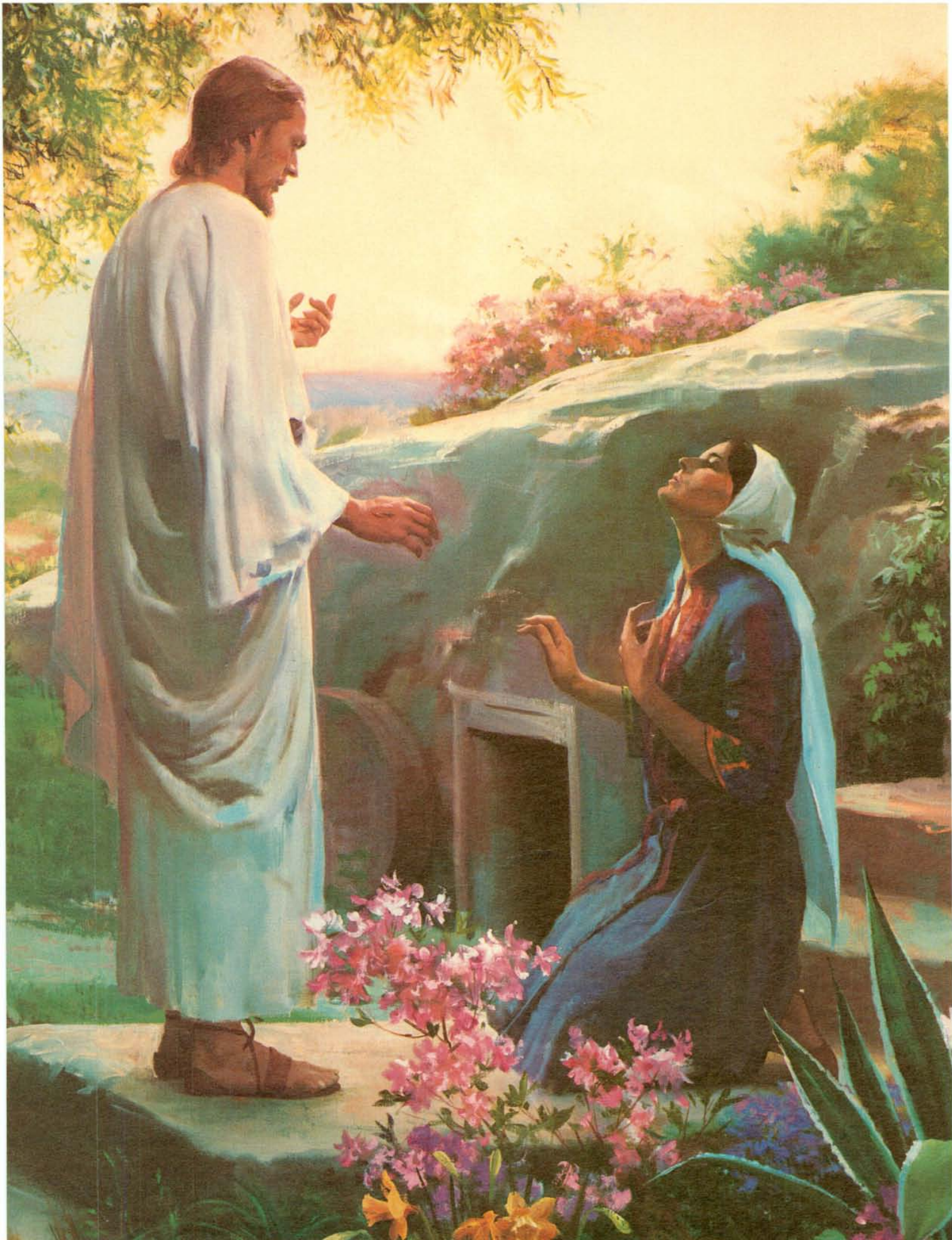
“어머니들은 교회 역사상 처음부터 끝까지 위대한 신앙의 전달자요 공급자였습니다. 저는 온 마음으로 그것을 믿습니다.”<sup>6</sup> □

## 주

1. 1995년 5월 21일 캘리포니아 바카빌/산타 로사 지역 대회
2. 1995년 5월 13일 유타 히버 시/스프링빌 지역 대회, 신권 지도자 모임
3. 위와 동일
4. 1995년 4월 30일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스카이라인 고등학교 세미나리 노변 모임에서
5. 1995년 4월 27일 유타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교 졸업식에서
6. 1995년 5월 14일 유타, 히버 시/스프링빌 지역 대회









# 부활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심은 우리가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로버트 제이 매튜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얹혀진 죽음의 무거운 손길을 느낀다. 그럴 때면 우리는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불멸의 육신으로 죽음에서 일어나 영원히 그 육신을 지니고 살면서, 늙지도 않고 육체적인 고통이나 병도 겪지 않으며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에 대해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총판리 역원이 이야기해 왔던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키우는 데 본질적인 요소이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리와,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일 원리로 가르쳐져야 합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4쪽)

## 구약전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활

구약전서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개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지만, 고대의 예언자들은 그 교리를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간결하게 가르쳤다.

예를 들면 욥은 자신의 쇠약해진 육신이 새롭게 되며 육신을 갖고 하나님을 보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욥은 구속주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욥기 19:2:5~27 참조)

에스겔서 37장에서 우리는 마른 뼈의 골짜기에 대한 에스

겔의 시현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 뼈들은 함께 모여 “서로 연락해”(7절)서 한 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때 주님은 에 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명하셨다.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에스겔 37:12, 14)

모든 인류의 육신이 부활할 것임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구약의 성구들이 부활의 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우리가 말일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지식의 근원을 갖지 못한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단지 상징적인 언어나 비유로 본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며 그분이 오늘날도 여전히 육신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한다.

## 신약전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활

구세주의 제자들조차 부활에 대해 처음으로 배웠을 때, 구세주께서 그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요한복음 11:25)이라고 하셨음에도 그것을 믿기 어려웠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이 굴러 옮기워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았을 때 “근심”(누가복음 24:4)하였다고 누가는 말한다. 그들은 두 명의 천사로 부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는 이야기를 들



그림: 길 하인리히 볼로흐, 그리스도의 매장



그림: 로버트 디 배러, 무덤에 온 요한과 베드로



프랜시스 홀랜드

예수님의 사도들은 주님이 실제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지만, 결국 그분이 부활하신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날, 그분의 빈 무덤은 그분이 살아 계심을 증거해 준다.

었다. 여인들은 급히 돌아가서 11명의 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으나 그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11절)였다.

같은 날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분을 영이라고 생각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누가복음 24:39) 그들은 그분을 보았고 만졌으며,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저희가 너무 기쁘므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41절) 제자들은 그분께 생선과 꿀을 드리고 잡수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은 필멸의 세상에서 기적이며 기이한 일이었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믿기 어려워 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과 뼈를 가지고 부활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베드로는 사도행전과 그의 서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

력하게 선포하였다.(사도행전 1:22; 2:32; 3:15; 4:33; 5:30-32; 베드로전서 1:3; 3:21 참조)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사도행전 4:1~2)하던 이 교리를 아주 담대하게 가르쳤다.

부활의 교리를 전하는 데 있어 바울을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많은 서한에서 그것을 엄숙히 선언했으며,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 가장 길고 자세하게 말해 주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설명을 해주었다.

### 물문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활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또 그러한 일이 여러분과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자 한다면 물문경을 보아야 한다.

물문경의 사명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 책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오천 년 전에 주님은 에녹에게 물문경의 출현과 그 책의 사명을 계시해 주셨다. “또 의를 하늘에서 내려보낼 것이요, 땅에서 진리를 내보내어 나의 독생자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과 모든 인간이 부활할 것을 증거하게



하리라.”(모세서 7:62)

물론경의 모든 주요 예언자들은 부활에 관한 교리를 가르쳤다. 물론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83번이나 나오며, “무덤에서 일어나”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구절은 최소한 26번이나 나온다.

### 리하이와 야곱의 가르침

예언자 리하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하매, 거룩하신 메시야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육신으로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없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느냐. 거룩하신 메시야는 육체를 따라 생명을 버리시나, 영의 권세로 생명을 다시 취하시, 일어설 자 중에 첫째가 되시어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시리라.”(니파이서 2:8)

우리는 이 성구와 다른 여러 성구에서 예수님이 첫번째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경전의 기사가 있지만 그들은 단지 필멸의 상태로 되살아난 것뿐이다. 이것은 신약에서 확인된다.(마태복음 27:52~53; 사도행전 26:23; 고린도전서 15:22~23; 골로새서 1:18; 요한계시록 1:5 참조)

니파이서 9장에서 위대한 교리 교사였던 야곱은 다음과 같이 부활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했다.

“죽음이 만민에게 임하는 것임에 위대하신 창조주의 자비로우신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부활의 권세가 필요하였고, 인간들의 타락으로 하여 부활은 인간들에게 필요하였으며 타락은 범범으로 말미암았으니, 인간이 타락한지라 주의 면전에서 절단되어 쫓겨났느니라.

“그러므로 무한하신 속죄가 반드시 있어야 했나니, 한량없으신 속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썩을 것들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지 못하매 인간들에게 내려진 첫번 심판이 끝없이 계속되었을 것이리라.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육신은 누워 썩어서 육

신의 어미인 땅으로 돌아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지라.

“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며. 보라 만일 육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진대, 우리의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타락하여 악마가 된 천사에게 속박되어 함께 악마가 되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임이라.

“또한 우리의 영은 저와 같은 악마가 되며 악마의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어 쫓기며, 거짓의 아버지와 함께 하며 그와 더불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진실로 저와 같이 되리니.”(6~9절)

아담의 타락은 모든 인류에게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까지 가져 왔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은 모든 인류를 이러한 두 가지의 죽음에서 구속해 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 심판 받을 수 있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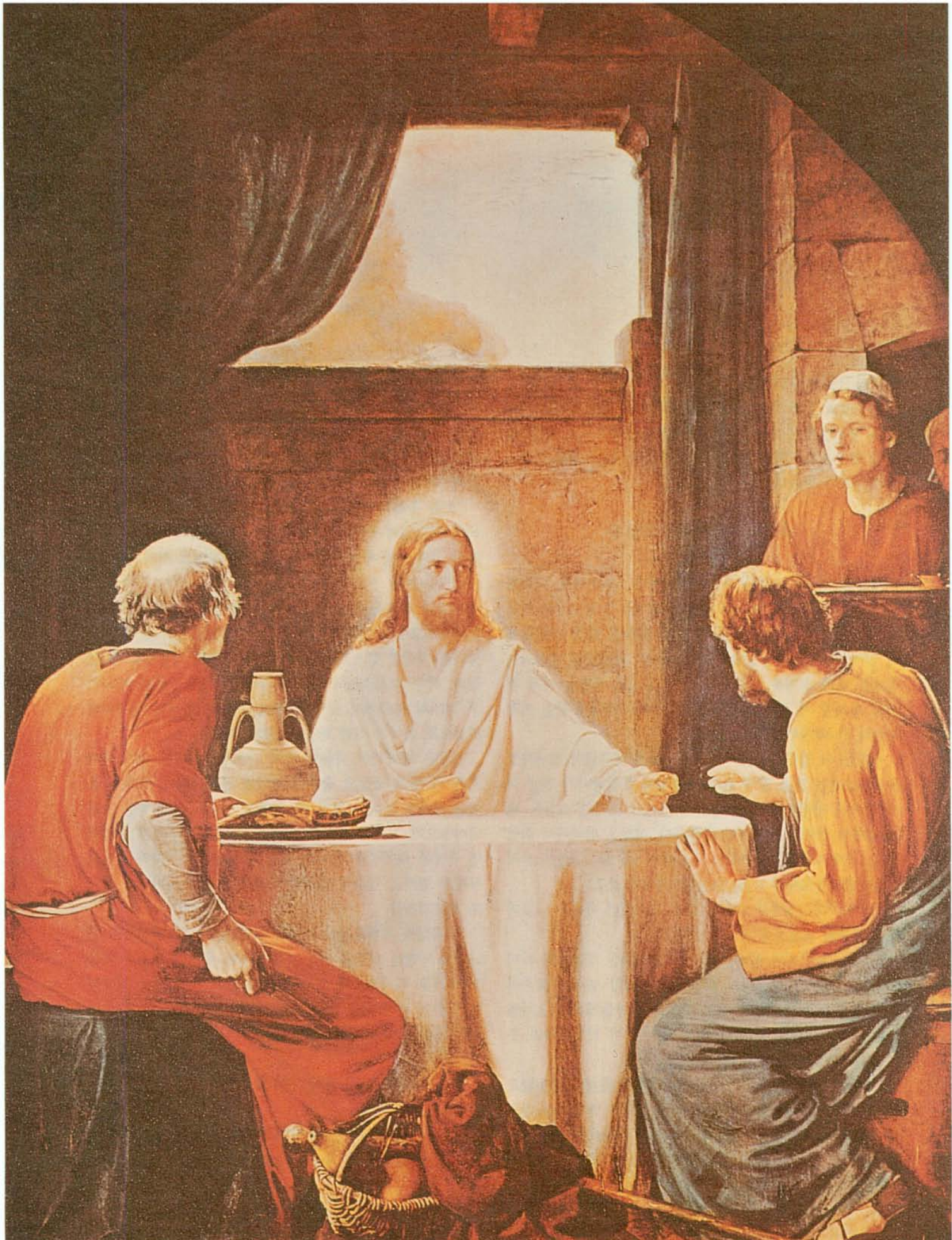
야곱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또한 내가 이야기한 바 영의 죽음도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리니, 영의 죽음이란 지옥을 뜻하는 것인 바, 사망과 지옥이 각각 죽은 자를 내어놓으며 지옥이 속박했던 영을 내어놓고 무덤이 속박했던 육체를 내어놓을 것임에,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부활의 권세로 인하여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저마다의 것으로 회복되리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위대하지 아니하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낙원은 의로운 영들을 내어주며, 무덤이 의로운 자들의 육체를 내어놓으며 영과 육체가 다시 제 것으로 회복되어 만민은 썩지 않을 것이 되며 불사불멸의 것이 되어, 육신은 우리와 같이... 되리니”(12~13절)

### 아빈아다이의 증언

예언자 아빈아다이는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 오실 메시야는 다름 아닌 세상의 창조주이신 여호와라고 말했다. “세상







이 시작된 때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시며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 오시며, 친히 학대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리라고 저들이 이야기하지 아니하더냐?"(모시아야서 13:33-35)

아빈아다이는 다음과 같이 더욱 자세히 가르쳤다. "장차 이를 일을 마치 이미 있었던 것같이 말하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강림하지 아니하셨던들 구속이 결코 없었으리라.

"또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서지 않으시며 죽음의 사슬을 끊으사 무덤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하시고 사망의 쏘는 듯한 고통을 제하지 않으셨을진대 부활이 없었을 것이나,

"부활이 있어 무덤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사망의 쏘는 듯한 고통은 그리스도 안에 삼켜졌으니...

"그러하여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의 것이 불사 불멸의 것이 되며,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어,"(모시아야서 16:6-8, 10)

### 부활에 대한 앰올레크의 가르침

앰올레크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더 가르쳐 주었다. 앰올레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다. "그가 세상에 오셔서 백성을 구원하시리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의 죄를 거두시어 그들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요, 그 외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악인은 죽음의 사슬에서 풀릴 뿐 구원이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되리라. 보라 모두가 죽음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

구세주께서는 부활하신 후 두 제자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부활체가 물질적인 육신임을 보여주셨다. 또한 그분의 몸은 이전보다 더욱 큰 능력을 갖고 있었다. (누가복음 24:13~32 참조)

에 서서 저들이 각각 행한 행위대로 심판 받을 날이 이르리라.

"이른바 육체적 죽음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육체적 죽음의 사슬을 푸신지라 모두가... 일어서리라.

"영과 육체는... 다시 결합될 것이요... 그렇게 된 다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명백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끌려 나와 서리라.

"이 부활은 모든 사람 곧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 속박에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 남자나 여자, 악하거나 의로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요... 그런 후에... 아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심판대에 끌려 나와... 저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제 보라, 나는 너희에게 죽지 않으면 안되는 육체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지 않으면 안되는 육신이 불멸의 몸으로 일어설 것이요,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부터요, 처음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것이니, 다시는 죽지 아니하리라. 저들의 영은 육체와 결합하여 다시는 나뉘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하여 전체가 영적이며 불멸의 것이 되어 다시는 썩지 아니하리라." (앨마서 11:40~45)

우리는 앰올레크가 영과 육이 다시는 분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특별히 주목한다. 부활한 생명체(존재)는 다시 육체를 부여 받을 수 없다. 한번 부활하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도 없다. 때때로 예수님은 다른 세상의 구세주일까?라는 의문이 일어난다. 그렇다. 그것이 대답이다. 그분은 다른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던 것일까? 분명히 아니다. 그 일이 다른 곳에서 일어났었다면 이곳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앞의 성구가 가르쳐주는 대로 부활한 생명체는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먼저 지어진 세상에서 부활하셨더라면 그분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었고 또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수도 없었을 것이다. 멸망의 자식들도 부활할 것인가? 그렇다. 부활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시 육신의 죽음을 겪을 것인가? 방금 읽었던 그 성구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분리될 것이며, 이는 그들이 영적인 죽음을 겪을 것이라는 뜻이지, 다시 육체적인 죽음을 겪는다는 뜻은 아니다.

### 엘마의 간증

엘마는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활의 교리를 가르쳤다. “보라 죽음으로부터 모두 깨어날 때가 약속되어 있느니라...”

“이 일 모두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에,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때가 한번이거나 두 번이거나 또는 세 번이거나가 문제되지 않나니...” (엘마서 40:4~5)

엘마는 부활이라는 말을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영혼은 육체로 돌아가겠고... 육신의 사지와 관절이 원래의 모양대로 회복되고 머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요, 신체의 모든 부분이 본래의 완전한 모양으로 회복되리라.” (23절)라고 말했다.

엘마는 다음과 같이 타락과 속죄와 부활 사이의 관계를 설명했다.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고 공의에 묶여 있[으니]... 그 공의는 인간을 영원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아내게 하신 것이다.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자비의 손길이 임할 수 없는 것이다. 자비의 계획을 펼치시려 주께서 스스로 세상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공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요, 완전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고자 함이라...”

“자비는 구속으로써 임할 것이다. 또한 구속은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 올 것이며, 죽은 자들이 부활함에 저들이 행한 대로 심판 받으며, 율법과 공의로 심판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리라.” (엘마서 42:14~15, 23)

### 목격자들의 설명

니파이삼서 11장에는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바운티풀 땅을

방문하여 많은 무리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손으로 만져 보아 그것이 실체임을 알게 하신 기사가 나온다.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강하... 사 무리 가운데 서심에...”

“이에 저가 손을 앞으로 내미시며...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저들에게 나타내어 보이시리라고 한 예언된 말씀을 저들이 기억하였음이라.

“주가 다시 저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일어나 내게로 와서 너희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 보고, 내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온 땅의 하나님임을 알라.

“이에 무리가 앞으로 나아가 손을 주의 옆구리에 넣어 보며, 그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고 나서, 저들의 눈으로 보며 친히 만져 보아 진실로 저가 예언자들이 오시리라고 기록한 그분이심을 알아 증거하였으니,

“무리가... 한 소리로 높이 부르짖어 이르기를,

“호산나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복되리로다 하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를 경배하였느니라.” (니파이삼서 11:8~17)

물문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인류를 구속하셨고, 무덤에서 일어나 모든 인류에게 육신의 부활을 안겨 주셨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심판 받는다는 이 장엄한 선언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 그 선언은 이 책이 주는 위대한 메시지이다.

### 현대의 계시

이와 똑같은 교리가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및 이 경륜의 시대의 다른 예언자들의 가



그림: 아놀드 프라이버그, 서방구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림: 테드 헤니저, 초자연적 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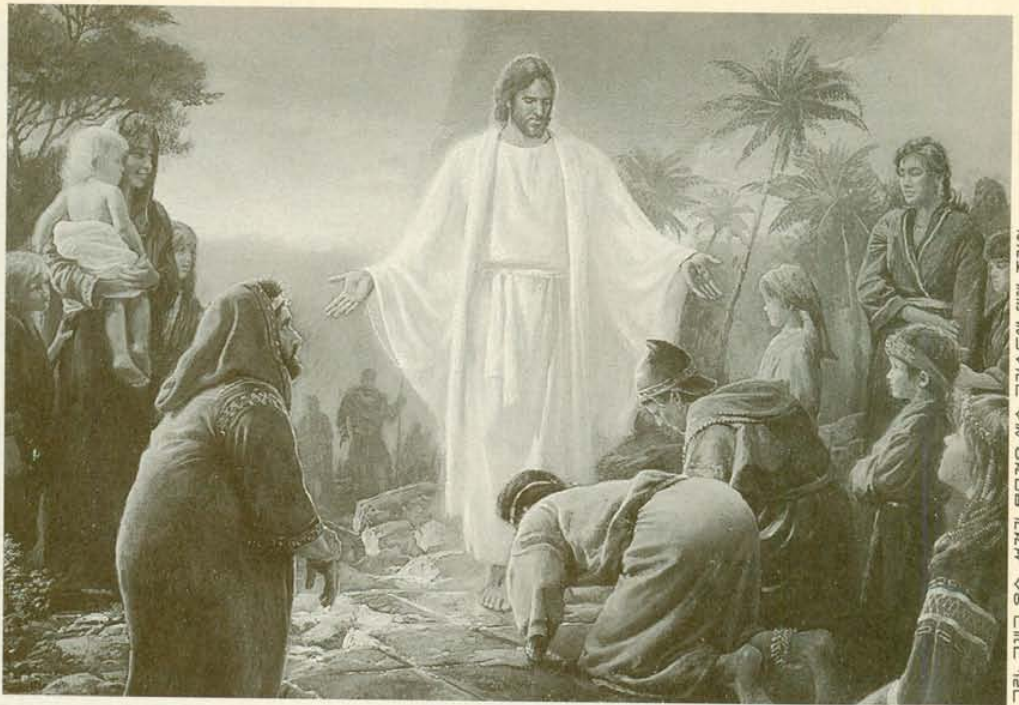


그림: 테드 헤니저, 초자연적 시험

르침에 더욱 상세하고 분명하게 나와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감동적인 말씀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35절) 그는 이 문제를 세 가지 등급의 영광을 설명하면서 함께 다루고 있다.(37~44절)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브리감 영 대관장(설교집, 6:275; 15:137~39 참조)과 에라스터스 스노우 장로(같은 책, 25:34)가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고 있다. 이들은 왕국에서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부활도 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권능을 가진 자와 위임받은 자들에 의해 행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자신을 침례할 수 없는 것처럼, 침례 받고 성임되어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도 침례를 베풀 수 없다. 하지만 스스로 부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권능을 가진 사람에게 의해서는 가능해진다. 사람들은 부활한 후에 이 의식을 수행할 권능을 받을 것이며, 그런 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 다른 말일의 계시를 통해 육신의 부활은 충분한 기쁨을 얻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배우며(교리와 성약 93:33-34 참조) 또 교리와 성약 45편 17절과 138편 50절을 통해 영의 세계에 있는 영들은 영이 오랫동안 육신과 떨어져 있는 것을 속박으로 여긴다는 것을 배운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해의 왕국

고대 미대륙에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증거를 전해준다. 그분은 부활하신 직후 의로운 니파이인들에게 성역을 베푸셨으며, 1820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뉴욕 주 팔마이라 근처의 작은 숲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방문하셨다.

에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보이기 위하여 이 지상에 왔습니다. 행복의 대원리에는 육신을 갖는 것이 포함됩니다. 악마는 육신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77쪽) 또 그는 “육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같은 책, 201쪽)라고 말했다.

우리는 말일의 계시를 통해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부활한다는 것을 배운다.(교리와 성약 29:23~25 참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현대의 예언자들과 사도들로부터 부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통찰력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고대 경전 및 지나간 경륜의 시대의 가르침과 더불어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해 감에 따라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 준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쳐질 때마다 부활의 교리도 함께 가르쳐졌다. 죽은 자의 부활은 영광스럽고 기적적인 사실이다. □





##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여인

내 인생은 공허했다. 나는 내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때 줄리가 도움의 손길을 뻗쳐 내가 구세주를 찾도록 도와주었다.

이름은 밝히지 않음

**나**는 말일성도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여덟 살 때 침례 받았고, 교회와 중고등부 세미나리에 충실히 참석했다. 그러나 복음이 언제나 내 인생의 일부이기는 했지만, 내가 진실로 개심했다고는 볼 수 없었다.

세미나리 수업을 들음으로써 경전 공부를 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몇 년간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기도를 진지하게 드릴 수 없었다. 청소년기에 많은 실수를 저질렀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도드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대학에 진학했으며 21세 때 나의 아버지는 사고로 뜻하지 않게 별세했다. 슬픔에 빠진 나는 경전 읽기를 중단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나는 성전에서 결혼하여, 내 남편이 법과 대학에 고학하며 다니는 동안 세 아이를 낳았다. 경전 공부와 깊고 진지한 기도에 의한 힘을 얻지 못한 나는 이 시련과 좌절의 시기에 큰 역경을 만나게 되었다. 나의 감정은 분노와 좌절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때 내 남편은 졸업한 후 취직하여 다른 주로 이사하게 되었다. 나는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살아 보았지만 이번 이사로 인해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의 새로운 와드는 비교적 부유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내 남편과 나는 학교에 많은 빚을 지은 상태였으며 재산은 거의 없었다. 우리에게는 낡은 차와 유행이 지난 옷과 어울리지 않는 중고 가구뿐이었다. 우리 가족과 와드의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큰 격차는 나에게 큰 고통이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탐내기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그들이 가진 것이 없는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러 달이 지나면서 나는 와드에서 친구를 만드는 데 큰 어려움을 느꼈다. 나는 대학내 와드에서는 매우 편안함을 느꼈으나, 이제 나는 나를 중요하게 대해 주던 친구와 가족에게서 격리되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다.

매우 더디게 한 해 반이 지났다. 나는 중학교에 다니던 십대 소녀 시절에 느꼈던 것보다 더 큰 불안과 외로움을 느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조차 포기했다.

그 때 내가 매우 존경했던 줄리라는 와드 회원인 한 자매가 내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보다 10살 연상인데 신앙이 돈독하여 모든 사람에게서 존경받는 여인이었다. 나는 그녀가 정말로 나와 사귀기를 원하는지를 믿을 수 없었으나 나는 매우 외로웠던 터라 매일 아침, 그녀 및 그녀의 친구들과 인근에 있는 운동장에서 함께 조깅하는 권유를 받아들였다.

줄리는 매일마다 아침 기도와 경전 공부를 마치자마자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항상 복음에 대한 열의와 경전을 읽음으로써 얻는 이해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와 함께 달리면 마치 예배나 세미나 반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나에게 진실로 관심을 가졌으며, 나의 좌절감과 두려움에 관해 어떤 편견도 없이 들어주었다.

나는 줄리의 열의가 결코 식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



줄리와 함께 달리면 마치 예배나 세미나 반에 참석하는 것과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항상 복음에 대한 열의와 경전을 읽음으로써 얻는 이해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의 모범을 따라서 나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정기적으로 진지하게 경전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영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풀벌반 고문의 부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영을 따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또한 그 동안 여러 모임과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지만 영적으로는 비활동 회원에 불과했었다는 느낌도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조금 늦게 도착한 적이 있었다. 줄리는 매주 여느 때처럼 찬송가를 지휘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미소 띤 얼굴은 아름답게 빛났으며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으며, 나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쁨에 휩싸였다. 나는 매우 놀랐다. 나는 내가 영을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았으나 그 느낌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주일학교 및 성찬식 시간 내내 이 크나큰 평화와 기쁨의 느낌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이에 관해 깊이 생각했다. 모임이 끝날 무렵, 나는 이러한 느낌을 가졌던 이유를 깨달았다. 그녀는 영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모습에 지닌 빛으로 구세주의 사랑을 회중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엘마서 5:14, 19 참조)



그때 내 마음에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속삭이듯이 들려왔다. “너도 그와 같이 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나는 매우 놀랐다. 갑자기 나의 시각이 바뀌었다. 나는 것처럼 미소짓는 것을 익혀야 했으며, 줄리가 내게 펼쳐 준 사랑과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모습에 지닌다면 누구도 내 웃이나 내 차나 내 집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후 나의 생활은 매우 달라졌다. 그 다음 달에 나는 그 동안 항상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던 가사 모임에 참석했다. 마치 처음 참석해 보는 사람처럼 그 방에 있는 자매들을 둘러보았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내 친구이거나 친구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누구에게도 교만함이나 비난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나 역시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관해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다.

그 이후, 나는 동기 부여를 받고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됨에 따라 계속해서 성숙해져 갔다. 나는 생활 속에서 영을 더욱 더 많이 느끼는 가운데,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는 신앙과 힘을 갖기를 원했다.

이때쯤, 나는 줄리가 말씀하는 노변의 밤 모임에 참석했다. 그녀는 기도에 관해 많이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의 권고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우 진지하게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전보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만을 위해 15분내지 20분을 할애하여 이 시간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과 만나는 약속 시간으로 여겼다. 나는 내가 전에는 결코 갖지 못했던 방식으로 응답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다.

나는 속죄에 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마음의 변화(엘마서 5:26 참조)에 대한 교리와 거듭나는 것(요한복음 3:3, 모사이야서 27:25 참조)의 의미에 관해 공부했다. 나는 공부하면서 구세주와 그분의 속죄의 권세 그리고 나의 모든 결점과 약점을 벗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속죄의 효력(교리와 성약 132:7 참조)에 대해 더욱 경외하는 마음을 키우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모사이야서 5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다음 말씀을 읽었다.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일컬음을

구세주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키워가는 동안, 나는 내 자신이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자녀들은 나에게 왜 그렇게 웃느냐고 물었고, 남편은 왜 우리 부부가 더 이상 말다툼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 물어 보았다.

반으리니… 너희는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인하여 너희 마음이 변화되었다 말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나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며,

“그를 머리로 하며 너희가 자유롭게 되었으며 너희를 자유롭게 할 자가 다시 없느니라.”

이제 나는 자유롭게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그 많은 두려움과 열등감과 부정적인 감정에서 풀려나와 마치 족쇄가 손과 발에서 풀어져 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나의 태도는 변화되었다. 자녀들은 나에게 왜 그렇게 잘 웃느냐고 물었다. 남편은 왜 우리 부부가 더 이상 말다툼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어머니와 형제들은 간단히 “어떻게 된 일이지?”라고만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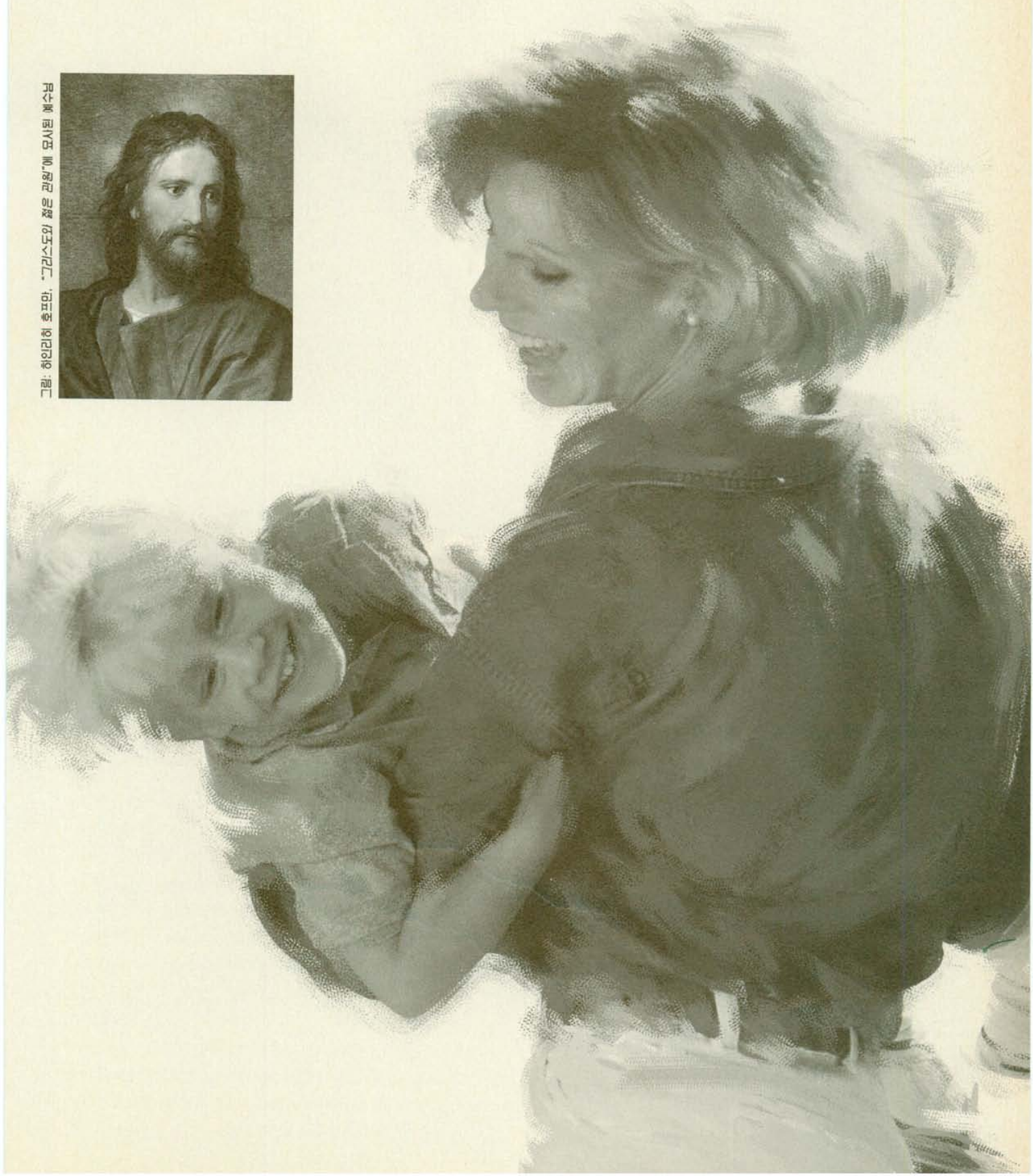
나는 내가 처음에 매우 불안함을 느꼈던 그 와드에서 3년을 보냈다. 지난 18개월은 성취감을 느낀 매우 훌륭한 기간이었다. 때때로 나는 어려운 시련에 직면했지만 주님이 나를 염려하고 계시며, 그 고통스런 경험은 나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 와드를 떠날 때 나는 그곳의 와드 회원들에게서 사랑뿐만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까지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봉사하고 말씀하며 가르칠 많은 기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영적인 경험도 많이 가졌다. 그 와드의 회원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줄리는 지금도 내게 소중한 친구로 남아 있다. 빛을 발하는 그녀의 은사는 계속 내 삶과 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녀의 모범은 나에게 빛의 근원이신 구세주를 아는 방법을 보여 주었으며 또한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고양시키고 사랑하며 위안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계속 발전한다면 언젠가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을 내 몸에 지니게 되리라고 믿는다. □



그림: 하인리히 호프만, "그리스도와 젊은 관원"에 묘사된 예수님







# 이곳을 기억하라

크리스탈 토마스

그림: 스티브 크롬

우리가 그 얼음 동굴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 곳이 얼마  
나 추운 곳인지를 즉각 느꼈다. 동굴로 더 들어갈수록  
그곳은 더욱 더 어두웠고 두려운 느낌이 들었다. 놀랍게도,  
그 동굴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나는 교회의 청년 야영 프  
로그램에 참가하여 그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삶이  
가고 있는 방향에 관해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나는 변  
화하기를 원하는 점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곧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큰 바위를 넘어야 하  
는 지점에 도달했다. 나는 그 큰 바위가 내 자신의 개인적인  
장애물과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만일 지금처럼 노력한다면  
큰 바위를 넘을 수 있듯이, 내 문제를 자신감을 가지고 조심  
스럽게 정복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았다.

다른 소녀들 뒤에서 천천히 가면서 그들의 전등 불빛이

마치 바위가 없는 듯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  
의 신앙은 매우 강해서 나는 나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새로  
운 힘의 분출을 느꼈다.

우리가 동굴의 끝에 도달했을 때, 한 역원이 우리에게  
전등을 끄라고 말했다. 주위가 퍽퍽해지자, 나는 이 동굴  
이 사탄이 사는 차갑고 어두운 곳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  
었다. 나는 그때 그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우리 가족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  
겠다고 결심했다.

불이 다시 켜졌고, 우리는 모두 동굴 밖으로 나왔다. 동굴  
의 입구를 향하여 "이곳을 기억하라"라는 손으로 쓴 표지가  
있었다. 그 곳은 내게 옳은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  
곳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 곳을 기억하기로 결심했다. □



# 일용할 양식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23)

**구** 세주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을 때 거기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마태복음 6:11)라는 간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간구의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에서 나오는 모든 유익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요,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니, “참으로 육체를 강건케 하며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음식이나 의복이나 맛이나 냄새를 위하여 만들어졌느니라.”(교리와 성약 59:18~19)

물질적인 영양물과 마찬가지로 영적

인 영양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 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하리라.”(요한복음 6:35)

우리는 구세주를 따를 때 영혼과 육신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사를 통해 양육되고 강건해지며, 이 두 가지는 매일 우리의 보살핌과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우리의 영은 매일 끊임없는 영양을 필요로 함.

진단을 받고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녀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1년간 치료를 받는 동안 다이어트와 영양 섭취에 관하여 아주 많은 것을 배웠다. 그녀는 자신이 취하는 식품에 관하여 철저히 공부했으며, 친구들에게 자기가 식품 영양학에 대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리라고는 이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농담도 하였다. 그런데 이 청년은 병과 싸우는 과정에서 경전 공부, 정기적인 성전 방문, 매일 기도 등의 습관이 신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식품 못지 않게 자기를 지탱시켜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교회의 찬송가가 위안을 주는 힘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이 청년은 투병 생활 전에도 경전 공부와 기도를 생활의 일부로 삼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매일의 영적 영양 공급의 가치를 새로운 의

미에서 깨닫게 된 것이다. 그녀는 “저는 매일 신선한 야채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매일의 아침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매일 영적인 영양물을 공급받음으로써 생활 속에서 주님이 지지해 주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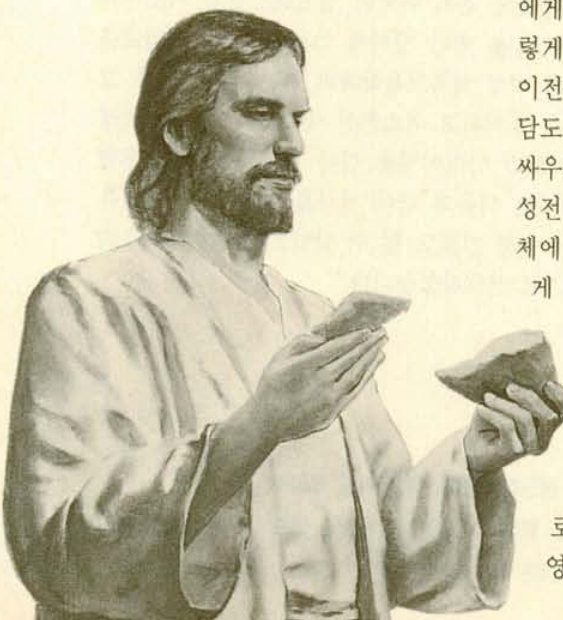
## 영적인 영양 공급을 함으로써 우리는 강건하게 성장함

신체 관리가 육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 영을 잘 관리하면 우리의 영적 능력은 증대되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며, 주님을 더 잘 따르면서 인생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 엘마와 모사이아의 아들들과의 기쁜 재회는 이런 사실을 잘 설명해 준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으로 복음을 연구한 자들인지라...

“그뿐 아니라 열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여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었고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가르쳤느니라.”(엘마서 17:2~3)

우리가 주님의 권유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사이아 아들들처럼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 “내게로 오라. 생명 나무 열매를 너희에게 먹여 주리니 참으로 너희가 생명의 떡과 물을 실컷 먹고 마시게 하리라.”(엘마서 5:34)

- 매일 영양분을 공급하여 영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 영과 육신을 매일 그 같이 관리하면 어떤 결과를 보게 될 것인가? □





# 헨리 비 아이어링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 인격이 형성됨

제럴드 엔 런드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그 당시에는 사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명되는 사건들이 있다. 이런 일이 1995년 4월 1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가장 최근에 지지 받은 헨리 베니온 아이어링 장로의 생애에도 있었다. 아이어링 장로에게 사도로서의 부름은 그의 말대로 많은 “결정적인 영향”의 절정이었다.

그에게 맨 처음 그러한 영향을 미친 것은 어린 시절의 가족 생활이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홀”이라는 애칭을 가진 헨리 비 아이어링은 1933년 5월 31일, 헨리 아이어링과 밀드레드 베니온 아이어링의 세 아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홀이 출생할 당시, 그의 아버지는 뉴저지 주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화학 교수였다.

미국의 동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이어링 가족은 교회 회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들의 조그만 지부에 속한 회원들은 호텔 방에서 모임을 가졌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연료 배급으로 여행이 제한되자 아이어링 가족의 집이 프린스턴에 사는 성도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다. 식탁은 연사의 강단이자 성찬식 탁자로 사용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찬송가 지휘자요 반주자로 종종 봉사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그녀의 반주에 맞추어 따라오도록 연주하면서 발로 마루를 탁탁 치기도 하였다. 아이어링 장로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미소짓는다. 그와 그의 형제인 하든 알과 에드워드 엠이 유일한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었으며 그가 성장하던 지부에서 유

일한 말일성도 청소년들이었고 아이어링 장로는 회상한다.

헨리 아이어링 일세는 매우 저명한 과학자가 되었으며, 마침내 수많은 명예 박사 학위 및 화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제외한 주요한 상을 모두 받았다. “저의 아버님에 관해 흥미 있는 것은 그 분이 이루신 일이라기보다는 그 분의 인품이었습니다. 그 분은 아리조나 주 파이어 출신의 깊은 신앙을 지닌 평범한 물문 소년이었습니다. 그 분의 업적으로 인해 그 분이 변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의 생애에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빼놓을 수 없는 분은 유타 주 그랜저 출신인 홀의 어머니, 밀드레드였다. 극소수의 여성만이 대학 교육을 받던 당시에 그녀는 유타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곳의 여성 체육교육학과의 학과장이 되었다. 그녀는 그 대학에서 휴직하고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중 헨리 아이어링을 만나 마침내 그와 결혼했다. 아이어링 장로는 다음과 같이 찬사를 보낸다. “어머님은 평소에 꿈꾸셨던 어떤 인물도 될 수 있었으나, 그 대신 우리의 어머니가 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른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의 최근 사진 위, 왼쪽부터: 부친, 헨리 아이어링; 형제들인 테드와 하든; 어린 홀; 모친, 밀드레드 베니온 아이어링







##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과학을 매우 좋아한 헨리 아이어링은 그의 아들들에게 과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위한 준비로 물리학을 전공하도록 격려했다. 홀이 유타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던 중 나눈 그의 아버지와의 대화는 그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영향 중 하나가 되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요청했다. “저의 아버님은 지하실에 우리가 보관하던 칠판 앞에 서셨습니다.” 아이어링 장로는 이렇게 회상한다. “갑자기 그분이 멈추시더니 ‘홀,’하고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전에도 이런 문제를 풀었지. 너는 지금 이 문제를 그때보다 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이 문제를 계속 연구하지 않았었니?’”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홀은 그렇다고 시인했다. “너는 깨닫지 못하고 있단다.” 그의 아버지는 말을 계속 이었다. “길을 걸어가거나 목욕을 하거나 어떤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을 때, 이 문제는 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

“저는 아버님께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어링 장로는 이렇게 말을 맺는다. “저의 아버님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정말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며, 제가 과학자가 되기를 그 분이 얼마나 바라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홀, 나는 네가 물리학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너는 어떤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을 때, 네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정도로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그 충고는 젊은 홀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당분간 물리학 학위를 계속하여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졸업했다. 그 전쟁 기간 중에 각 와드에서 부름 받는 선교사의 수는 크게 제한되었다. 더욱이 그가 졸업할 당시, 홀은 이미 미국 공군의 장교로 임명된 상태였다. 그래서 그는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지 못하고 군대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가 떠나기 전에 감독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가운데 홀은 그의 군대 생활이 그의 선교 사업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홀은 원래 공군에 의해 임

시 교육을 받도록 뉴 멕시코 주 엘부케르크 인근의 산디아 국립 연구소로 배속 받았으나 상황이 변해 그는 그 곳에서 2년간 머물면서 군복무를 마치게 되었다. 그가 도착한 지 2주일 후, 그는 서부 지역 선교부에서 지방부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 그는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거의 2년간 그 직분을 맡아 봉사했다.

군복무를 마친 헨리 아이어링은 공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으나 물리학은 아니었다. 그는 매사추세츠 주 캠브리지에 있는 하버드 경영 대학원에 등록하여 경영학 석사 학위를 이수했다. 그가 그 학업을 마쳤을 때, 그의 아버지의 충고는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전공할 경영학 분야를 결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는 자신이 강하게 이끌리는 사업 형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완전히 만족하는 것은 사업을 가르치는 일, 즉 다른 사람들이 복잡한 사업 과정을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하게 돕는 일이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계속 공부하여 경영학 박사 학위를 마쳤다. 그는 논문을 마치고도 전에 그는 캘리포니아 주 팔로 알토에 있는 스탠포드 경영 대학원의 조교수로 채용되었다.

그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겠다는 결정은 또한 한 가지 이유에서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즉 그가 1961년 여름에 보스턴에 계속 머물고 있을 때, 캘리포니아 주 팔로 알토 출신의 제이 시릴과 라프레일 린드세이 존슨의 딸인 캐서린 존슨이 여름 학기에 참석하기 위해 보스턴에 왔던 것이다. 그 당시 보스턴 지방부 부장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던 홀은 독신 성인을 위한 새벽 예배 모임을 감리하도록 임명 받았다.

그 새벽 모임을 마친 후 그는 한 젊은 여성이 나무 숲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이름다움에 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말씀이 떠올랐다. “만일 최선을 다하고 싶은 소망을 느끼게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면, ... 그러한 젊은 여성은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복음 이상, 솔트레이크시티: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3년, 459쪽) “그것은 제가 캐서린을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정확한 느낌이었습니다.”라고 아이어링 장로는 말한다.





헨리 아이어링과 그의 아내 캐서린, 결혼 피로연에서

홀과 캐서린은 다음 일요일에 교회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저는 홀이 특별한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라고 캐시는 말한다. “그분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그 여름의 남은 기간과 캐서린이 캘리포니아로 돌아간 이후까지 그들의 열애는 편지와 전화로 계속되었다. 그들은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의 주례로 로간 성전에서 1962년 7월에 결혼했다.

### “그것은 나의 학교이다.”

캐시는 현모 양처 이상이었다. 그녀는 헨리 비 아이어링의 생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또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한 가장 좋은 예 하나가 홀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약 9년간 가르치고 있을 때 일어났다. 그 시기는 그들 생애에서 매우 행복한 시기였다. 그는 스탠포드에서 가르칠 과목과 교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자유를 부여받았다. 그는 매사추세츠 기술 공과 대학에 방문 교수로서 보스톤에 일년간 돌아가 있었다. 그는 또한 사업계에 들어가서 피니간 기계 회사의 임원으로 일하고 컴퓨터 제조 회사인 시스템 산업 회사를 창업한 사장으로 일했다. 교회에서 그는 세미나리 새벽 반에서 가르쳤으며 그의 워드 감독단에서 한동안 봉사하다가 대학내 워드인 스탠포드 제1워드의 감독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변하게 되었다. 아이어링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나에게 다가와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쉬었다가 설명한다. “저는 놀랐습

니다. 이제 저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종신 교수이자 스탠포드 워드의 감독입니다. 우리는 제 아내의 부모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매우 좋아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닐 맥스웰 장로님을 위해 연구하실 수 없으세요?”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아이어링 장로는 잠시 쉬었다 말한다. “여러분은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당시 교회 교육 기구 교육감이었습니다. 캐시는 그분을 알지도 못했고 저도 그분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에 관해 질문을 받은 캐시는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동의한다. “그러나 웬지 저는 그분이 해야 하는 더 중요한 어떤 일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스탠포드에서 그분이 가르치는 일이 훌륭하다고 느꼈지만 저는 진실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그분이 가르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교회 교육 기구에 관해 알았으며 닐 에이 맥스웰 장로가 교육감임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홀은 그 문제에 관해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 그는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 아니,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이후 오래지 않아 전화가 울렸고, 홀 아이어링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교육감인 맥스웰 장로가 홀에게 솔트레이크시티로 올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그 곳으로 갔다.

“저는 부모님 댁에 있었습니다.” 아이어링 장로는 회상한다. “그래서 맥스웰 장로님이 그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홀, 저는 형제님이 릭스 대학의 학장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였습니다.”

아이어링 장로는 그 말을 하며 미소지었다.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동부 지역에서 자랐으며 캘리포니아 주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릭스 대학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만일 그 대학이 2년제인지 4년제인지 질문 받았다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요한 부름이 가볍게 다뤄지지는 않았다. 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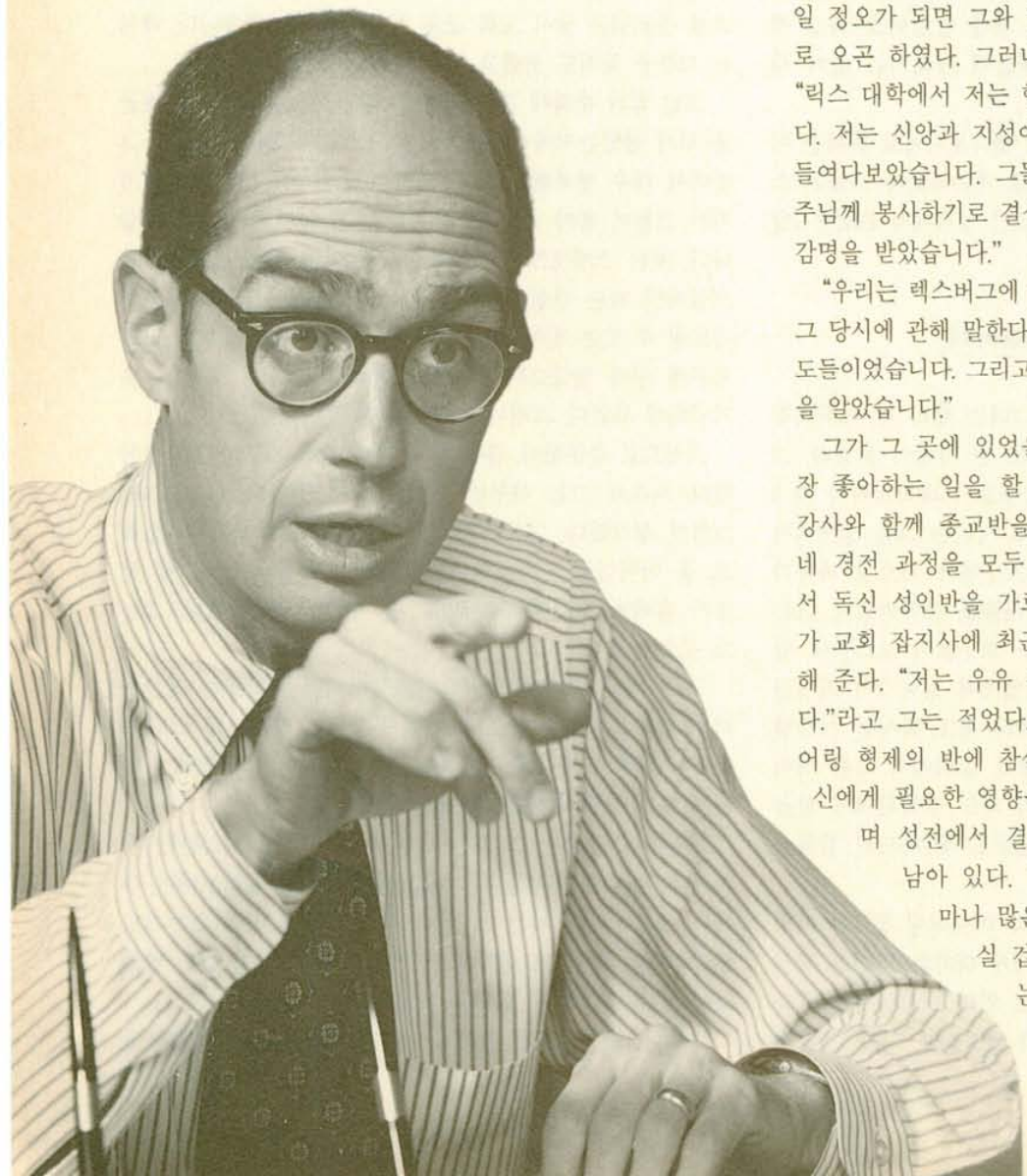
아래, 왼쪽부터 : 좋아하는 역할, 가르치는 일. 위 : 아이링 장로가 그의 두 손자녀에게 책을 읽어 주고 있다.

트레이크시티를 떠나기도 전에 그는 그 제안에 관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 이틀 동안 그는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고 고민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한번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학교이다.’”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필요한 모든 대답이라는 점을 깨달은 그는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며 그와 캐서린은 스탠포드를 떠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1971년 12월 10일, 헨리 비 아이어링은 텍스 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했다.

대도시에 위치한 미국의 으뜸가는 대학에서 아이다호 주 렉스버그의 시골에 있는 조그만 사립 대학인 2년제 학교로 가는 것은 상당한 변화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어링 가족에게 훌륭한 시간이 되었다. 그것은 가족이 서로 가까이 지낼 기회를 주었다. 학교가 대학 근처에 있던 아들 둘은 매일 정오가 되면 그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그의 사무실로 오곤 하였다. 그러나 그것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었다. “텍스 대학에서 저는 헌신적인 교수 및 직원들과 일했습니다. 저는 신앙과 지성이 겸비된 건전한 젊은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개방적이며 우호적이었고, 주님께 봉사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저는 매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렉스버그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캐시는 그 당시에 관해 말한다. “그들은 신앙이 깊은 훌륭한 말일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남편이 행해야 할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 곳에 있었을 때, 학장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는 다른 강사와 함께 종교반을 가르쳤으며 학장직을 마치기 전에 네 경전 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그는 또한 주일학교에서 독신 성인반을 가르쳤다. 그 반에 참석했던 한 젊은이가 교회 잡지사에 최근에 보낸 편지는 그 경험에 관해 말해 준다. “저는 우유 부단한 성격에 다소 반항적이었습니다.”라고 그는 적었다. 그 당시 그와 그의 친구들은 아이어링 형제의 반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 곳에서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영향을 받았다. 그는 선교 사업을 나갔으며 성전에서 결혼하고 그 이후 활동적인 회원으로 남아 있다. “아이어링 장로님은 아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 편지는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





자의 조용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 “제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이제 네 아들과 두 딸을 둔 아이어링 부부는 서로가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에 찬사를 보낸다. 아이어링 장로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캐시를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최초의 느낌이 올바른 것이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언제나 제가 최대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이어링 자매는 남편에 대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꾸준하다는 말은 그를 묘사하는 가장 적합한 말입니다. 그분은 훌륭한 남편이며 자상한 아버지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가장 감사하는 것 중 하나는 그분이 영에 뛰어난 감수성을 가지셔서 그 영을 가정에까지 가져 오시는 것입니다.”

아이어링 장로는 그의 아버지의 모범에 공을 돌린다. “제 부친은 무겁고 힘든 책임을 맡았어도 우리를 사랑했으므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토요일 아침에 가족이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짜거나 가정의 밤에서 발표할 정교한 수채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는 절절 웃으며 시인한다.

아이어링 장로의 네 아들인 헨리, 스튜어트, 매튜 그리고 존은 모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결혼한 세 아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지금까지 일곱 명의 손자녀를 안겨 드렸다.

아이어링 장로 부부의 장남인 헨리는 그에게 특별히 소중한 경험을 말한다. “저는 일본에서 선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좀더 자세히 말한다. “저는 강한 확신과 높은 기대감에 차서 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나도 그는 한 사람도 침례를 주지 못했다. “저는 매우 낙담했습니다.” 헨리는 계속 말한다. “좌절감에 빠져 있는데 저의 아버님께서서 짧은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헨리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노고를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이었다.

상기된 목소리로 헨리는 말을 맺는다. “그 말이 저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더라면 저에게 손수 말씀하셨을 내용이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매튜는 그의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렇게 묘사한다. “우리가 모두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그분에게는 우리가 자신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항상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기를 원하게 해주십니다. 저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분이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두 가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것은 ‘저에게는 제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축복을 갖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이며 두 번째 기도는 ‘제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자베스와 매리 캐서린은 아이어링 장로 부부의 어린 두 자녀이다. 유타 주 바운티폴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엘리자베스는 아버지가 매달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돕는 게 자신의 일이라고 말한다. 그녀와 매리 캐서린과 그녀의 아빠는 또한 매달 가족 회보를 만들어, 이것을 아이어링 가족이 이제는 서로 떨어져 있는 가족끼리 서로 연락을 주고받도록 사용하는 데 사용한다.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아빠는 타자를 치시고, 저는 편집을 맡습니다. 매리 캐서린은 미술 부장입니다.”

열한 살인 매리 캐서린은 헨리 아이어링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에 대한 소감을 “참 재미있어요.”라는 짧은 말로 표현한다.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종종 함께 수채화를 그리며 또한 가족을 위해 빵을 굽는다. 아이어링 장로가 때때로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가족에게 아이어링 장로에게 새로운 부름이 주어진 지금도 그런지 질문했다. “그분은 오늘 아침도 제가 아침 식사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셨어요.”라고 매리 캐서린은 대답했다.

릭스 대학에서 학장으로 일하던 헨리 아이어링은 많은 총관리 역원과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과 가까운 교류를 하게 되었다. 헨리는 지역 대표로 부름 받았으며 그후 본부 주일 학교 임원으로 봉사했다. 릭스 대학에서 5년간 일한 그는 당



시 교회 교육 기구 교육감이었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에게서 부교육감으로 봉사하도록 요청 받았다.

삼 년 후, 교육감인 홀런드 장로가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이 되었을 때, 헨리 비 아이어링은 신입 교회 교육 기구 교육감으로 부름 받았다.

헨리 아이어링은 교회 교육 기구에서 봉사하면서 교회에 대한 그의 능력을 펼칠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저는 젊은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는 데 전 시간을 보내는 세미나리 교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저는 전세계 여러 곳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를 방문했으며, 그 아름다운 아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여기에 교회의 미래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녀 모두 교실에서 무릎을 꿇고 마루를 닦거나 뜨거운 햇빛 아래 교회 학교 앞 마당에서 일하며 그 곳을 학습을 위한 쾌적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힘이 회원들의 단순한 신앙과 헌신에 있음을 훌륭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 “주님의 도움이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교회 교육 기구의 종교 교육 및 학교 행정가인 스탠리 에이 피터슨은 아이어링 장로가 부교육감으로 부름 받았을 때 보조 교육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다. “저는 이분과 18년간 함께 가까이에서 일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분은 주님께 봉사하고 총관리 직원들을 따르려는 매우 큰 열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1985년 4월, 교회 연차 대회에서 또 하나의 예기치 못한 변화가 아이어링 부부에게 왔다. 교육감으로 일하고 있던 아이어링 형제는 당시 교회의 관리 감독이던 로버트 디 헤일즈 감독의 제1보좌로 지지 받으면서 아이어링 감독이 되었다. 헤일즈 감독과 일하는 것은 또 하나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동기가 되었다. “헤일즈 감독님은 훌륭한 스승이자 친구였습니다.”라고 아이어링 장로는 말한다. “그분이 저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1992년 9월 아이어링 감독은 다시 교회 대관장단에 의해 7

년간 공석이었던 교회 교육 기구 교육감이 되도록 요청받았다. 한달 후, 그는 관리 감독단에서 해임되고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받았다. 그러나 그의 주요 임무는 교육감으로 봉사하는 데 있었다. 그러면 그가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받은 일은 교육감 직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는 미소지으며 설명한다. “한동안 저의 교육 분야의 임무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일정표만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9백만 명 이상의 회원이 전세계 150개국 이상에 널리 퍼져 있는 시기에 십이사도 정원회에 속하게 된 아이어링 장로는 지난 세월에 많은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에 감사드린다.

“주님은 제가 수많은 회원들의 시각에서 교회를 바라보도록 허용하셨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저는 큰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저의 첫 경험은 가족적인 분위기의 조그만 지부에서였습니다. 공군에 있었을 때 저는 지방부 선교사로서 인디언 보호 구역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 갔을 때 그 곳 역시 지부였습니다. 그 곳은 제가 떠난 직후야 스테이크로 되었습니다. 그 후 교회 교육 기구에서 일하면서 저는 진실로 주님과 그분의 왕국에 헌신적인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는 이보다도 사도 직분에 대한 부름을 받아들이는 데 더욱 큰 도움이 되는 준비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부름을 받아 얼마간 그것을 경험한 그에게 사도 직분에 관한 그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가? 그는 주저 없이 대답한다. “저는 이 성스러운 직분을 맡아 봉사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주님의 도움이 매일 더욱 더 크게 필요함을 느낍니다.”

“결정적인 영향”은 헨리 비 아이어링의 생애를 형성시키는 데 확실히 도움을 주었다. 이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 봉사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로부터 오는 것보다도 더 큰 “결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아는 아이어링 장로는 그 간증을 세상 끝까지 전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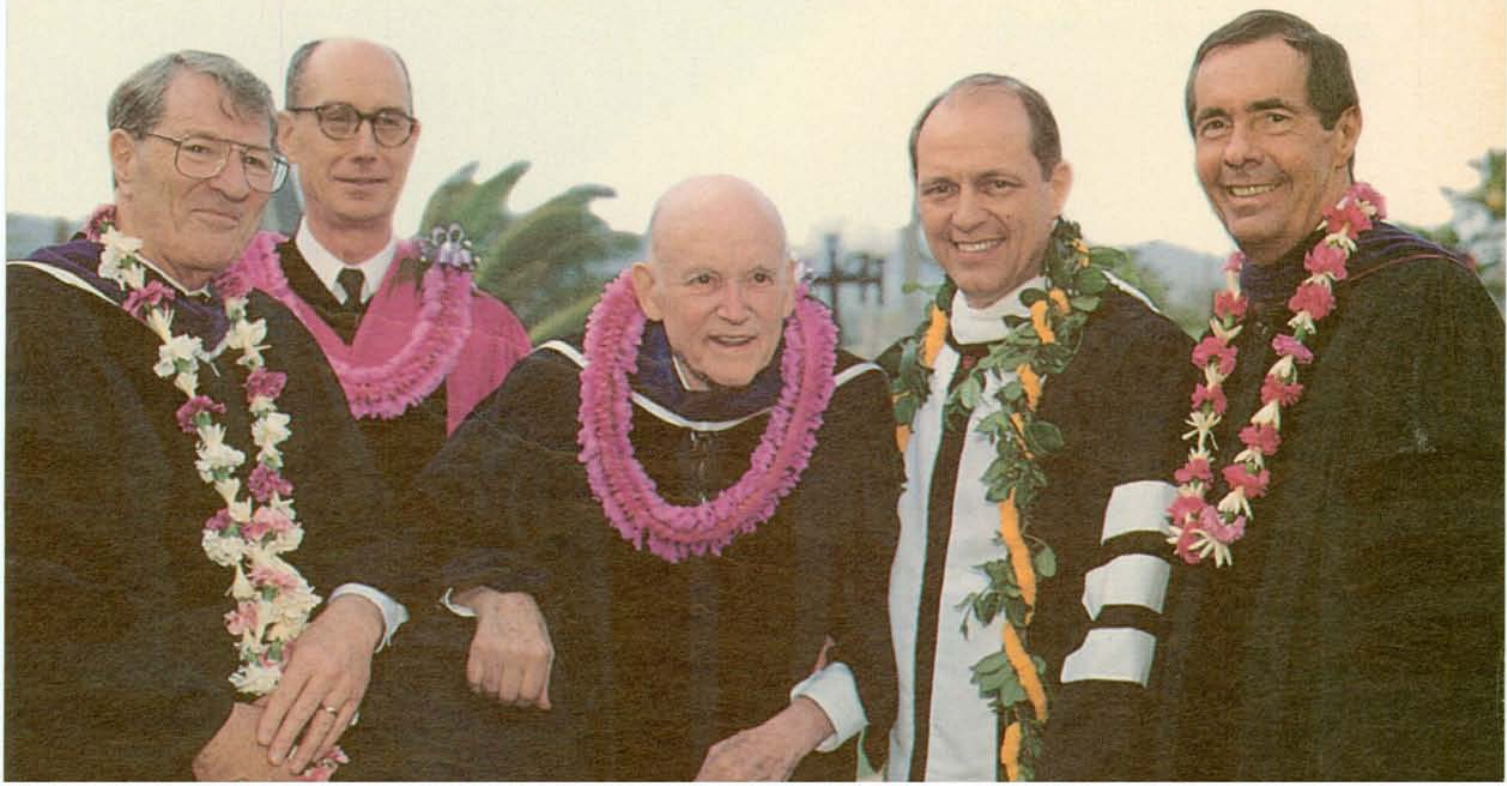




위: 아이어링 가족의 최근 사진. 앞줄 왼쪽부터: 딸, 매리 캐서린, 아이어링 부부, 엘리자베스  
뒷줄, 왼쪽부터: 아들, 존, 매튜, 스투어트 및 헨리



위: 모친과 함께 한 아이링 장로. 아래쪽: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분교의 신임 총장 취임식에서. 왼쪽부터: 십이사도 정원회의 날 에이 맥스웰 장로; 당시 칠십인 정원회의 아이링 장로;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분교의 신임 총장인 에릭 비 섬웨이, 당시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인 렉스 이 리





마빈 케이 가드너와 브라이언 케이 켈리

**겨**울의 갈색 대지는 생기가 없어 죽은 듯이 보인다. 튜립은 지난해의 생생한 빛깔이 퇴색하면서 사람들에게서 점차 잊혀져가고, 이듬해 다시 꽃이 핀다는 것은 어쩌면 신앙의 문제이다. 지금 튜립의 구근은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잠들고 있으니.

봄이 되면 푸른 싹들이 따스한 햇볕을 받아 살며시 대지 위로 올라온다. 삼시간에 모든 꽃들이 만발하고, 들판은 온통 생동하는 빛깔로 덮여 진다.

봄의 꽃은 전통적으로 생명, 탄생 또는 부활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네덜란드 헤이그 스테이크의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부활절이 되면 튜립, 수선화 또는 크로커스 꽃들로 둘러싸인다. 이 꽃들은 인생이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의 이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부활로 말미암아 모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장엄한 기념물인 것이다.

# 네덜란드의





조스 레인더즈(16세, 아래)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가정 복음 교육 중에 공과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그리고 죽음 후의 생명에 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과를 가르치는 동안 저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그것을 실제로 느꼈기 때문에 저는 소리내어 올 뻔했습니다."

넬 프린스(19세, 위)는 그녀의 남동생 잰(16세)과 헨크(17세)가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한다.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힘든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저를 도와주시죠, 저는 종종 마음속으로 주님과 토론을 해요. 그때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압니다."

헨크는 이렇게 말한다. "세미나리 시간에 저는 성서의 모든 이야기가 참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저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신지와 왜 돌아가셔야 했었나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리스도에게 더욱 가까이있음을 느낍니다."

# 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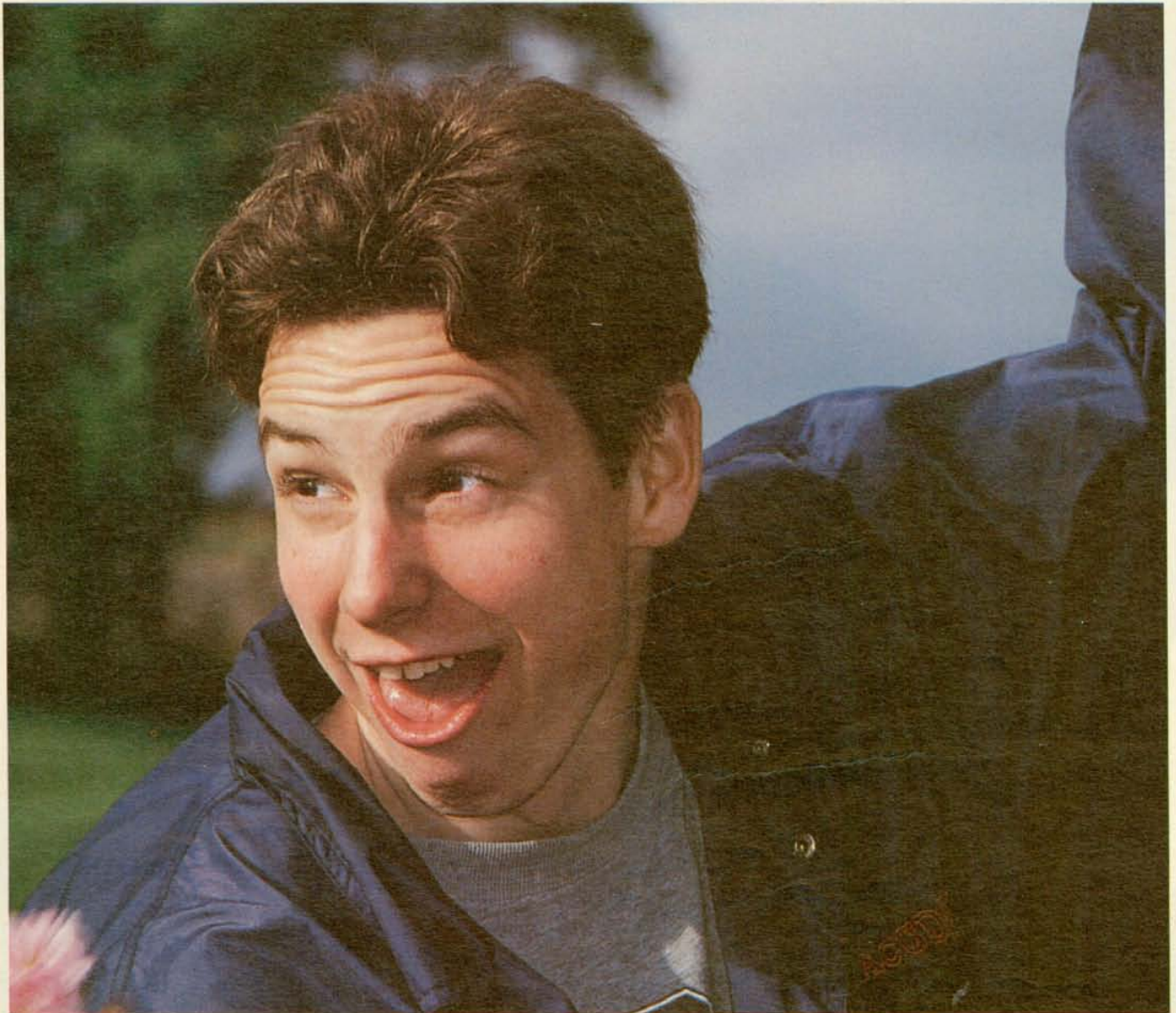




**네** 델란드의 청소년 말일성도들은 그들의 국토와 그 아름다움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들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도전에 직면하지만, 그들의 생활과 용모에는 아름다운 복음 원리들이 반영되어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하여 그런 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그들의 첫번째 대답은 언제나 세미나리이다. 그 밖에 기도, 경전 읽기, 가정의 밤, 축복사의 축복, 청남 청녀 활동, 봉사 활동, 청소년 대회, 성전(독

일 소재) 방문 및 복음 선교사와 함께 하는 선교 사업 등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쟈 프린스(아래)의 말에 의하면, 이 곳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서로를 돕고 격려해 준다.







태나 브로우크만(16세)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학교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담배를 피우고, 많은 아이들이 별로 좋지 않은 일을 해요. 그들은 저를 끌어다가 그런 일을 하도록 하려고 해요. 제가 '안돼'라고 말하면 그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지요. 제가 왜 교회를 다니며, 제가 믿는 교리를 왜 믿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조스 레인더즈의 다음과 같은 말은 대다수 말일성도들이 겪는 유사한 경험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 저는 유일한 말일성도입니다.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한 혼전 성관계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위의 유혹과 압력이 큼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단연 거절을 합니다. 저는 이미 그러한 결심이 서 있거든요."

텔리타 반 더 풋트(17세, 위)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저의 표준을 지킵니다. 제 친구들도 제가 어떤 표준을 지키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재미있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로버트 컷트(14세, 위)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매일 아버지와 함께 경전을 읽음으로써 간증을 얻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경전을 함께 읽고, 계속해서 세미나리 과제를 하죠."



개비 잰슨(16세, 왼쪽)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주님이 살아 계시며 제가 도움을 구할 때 언제나 저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어요. 주님은 매일 저를 축복하신다고 생각해요."

마틴 덱커(15세)는 이렇게 말한다. "저의 친구들이 제가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저에게 하기를 요구할 때, 저는 단연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선택하는 바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 늘날 네덜란드에는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막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나 풍차의 경우는, 그림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들의 생활을 주님께 맡길 때, 그들은 주님의 무한하신 권세와 자비와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



나 볼 수 있는 구형이나 첨단 장비를 갖춘 신형이나를 막론하고 많은 풍차들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다. 이들 풍차들은 해면보다 낮은 땅의 물을 퍼 올린다. 그러면 운하가 이 물을 바다로 내보내고, 제방은 바닷물의 역류를 방지한다. 이런 방법으로 네덜란드인들은 바다를 이용하여 많은 땅을 되찾아 유용하고 비옥한 농토로 만들고 있다.

지넷트 클레이버그(15세, 오른쪽)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주변에서 작은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예를 들면, 여러 해 동안 교회에서 비활동 상태로 있던 어떤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고 다시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보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테나 브로우크만(16세, 오른쪽)은 이렇게 말한다. "제 친구 한 명이 작년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애를 교회로 데려와 활동에 참가하도록 권유했죠. 그 애는 곧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니, 교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했고 결국은 침례를 받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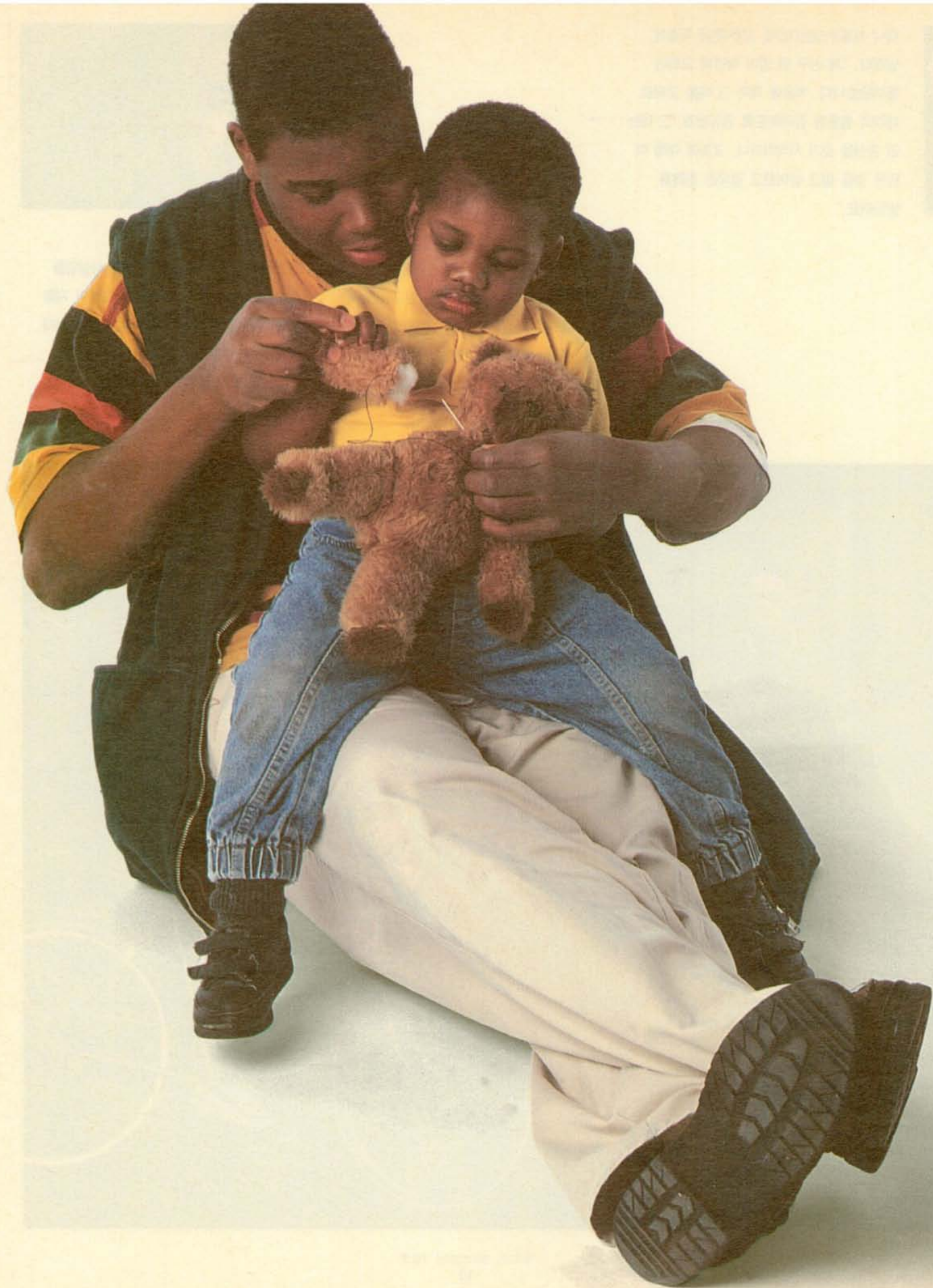


데비 레인더즈(18세, 아래 중앙)는 세미나리 새벽반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저는 저의 경험에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도우십니다. 저는

경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임을 압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저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간증은 제가 생활하면서 복음 안에서 충실하게 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봉사 활동

태머러 리썸 배일리  
촬영: 스티브 번더슨

여러분은 봉사를 하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우리의 생활은 교회 활동, 동아리 활동, 학업, 가정 일, 직업, 기타 사고 모임 등으로 분주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보이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나 봉사는 반드시 큰 것 아니라도 된다. 흔히 하찮은 봉사 행위가 가장 큰 봉사를 의미할 수도 있다. 아래에 열거된 봉사 행위 중 어느 것이든 한번 시험해 볼 일이다. 그 대부분이 15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일들이다.

- 이전에 만나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미소짓기.
- 동생들이나 이웃집 아이에게 이야기 책을 읽어 주기.
- 상점 점원에게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기.
- 친구에게 우편 엽서 보내기.
-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칭찬 해주기.
- 활동 모임에서 새로 온 사람을 당신의 팀에 끼도록 권유하기.
- 병환 중의 친구를 방문하기.
- 가정에서 다른 식구를 위해 침구를 깔아 주기.
- 아빠를 껴안기.
- 새로 이사온 이웃에게 인사하기.
- 아기 엄마가 성찬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신 아기를 돌봐 주기.
- 선교사에게 간단한 편지를 써서 보내기.
- 가정에서 다른 사람이 지적하기 전에 자신에게 할당된 허드렛일을 불평 없이 하기.
- 교회 모임이 끝난 후 쓰레기를 줍기.
- 축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 먹을 음식이 별로 없는 사람과 점심 식사를 나누어 먹기.
-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 공부하기.
- 버스 안이나 회의 장소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기.
- 비회원 친구를 가정의 밤에 초대하기.
- 활동 모임 후에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기.
-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 주기.
- 방문한 집의 화단에서 아무도 모르게 몇 분 동안 잡초를 뽑아 주기.
- 동생들이 망가지거나 부서진 장난감 고치는 일을 도와주기.
- 아버지 또는 오빠나 남동생이 일요일 교회에 입고 갈 셔츠를 다리미질 해주기.
- 해지는 장면을 구경하러 가는 데 어린 애를 데리고 가기.
- 공과가 끝난 후 잠시 머물러 있다가 주일학교 교사에게 감사를 표하기.
- 너무 어려서 글을 읽을 수 없는 동생에게 하루 15분씩 경전을 읽어 주기.
- 봉사할 기회를 얻기 위해 성신의 도움을 간구하고 성신의 속삭임에 귀기울이기. □



# 조각

## 애미 조우 잭슨

어렸을 때, 나는 아빠와 함께 별로 시간을 갖지 못했다. 아빠는 낮에는 온종일 대학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대부분 직장에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빠에게 실로 고달픈 생활이었지만, 그 분은 자신 외에 엄마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는 아빠가 나를 위해 만들어 준 나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곤 하였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아빠는 나무를 가지고 블럭이며 동물이며 퍼즐 따위의 장난감을 만들어 주셨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것은 아빠가 나를 위해 조그만 나무 조각을 깎아 만들어 주신 한 자루의 작은 칼이었다. 내가 정말 기뻐했던 것은, 이 칼을 가지고 가상의 적과 싸우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빠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손수 그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우리 아빠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다. 보통의 나무 조각을 가지고 나의 작은 칼처럼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칼을 손에 쥐고 앉아서 그것을 바라보며 아빠가 특별히 시간을 내어 나를 위해 그 칼을 만들어 주시던 때를 생각해 보곤 하였다.

수년 후 아빠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시게 되었을 때, 나는 전보다 아빠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칼이 나에게 주는 가치는 조금도 줄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밖에서 놀고 있었다. 그 때 나는 아빠가 하시는 일을 보았는데 그것은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해 했다. 아빠는 우리 집 계단 위에 앉아서 오른손에 호주머니 칼을, 왼손에는 나무 조각을 쥐고 한 자루의 조그마한 칼의 형상을 천천히 깎고 계셨다. 아빠가 즐겁게 휘파람을 부시며 깎고 있는 동안, 나는 조그만 나무 부스러기들이 사방으로 튀겨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빠는 나에게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으셨다.

그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오른손에 호주머니 칼을, 왼손에 나무 조각을 쥐고 아빠의 바로 옆에 앉았다. 그러자 아빠는 내 스스로 작은 칼을 깎아 만드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내가 칼을 만들 때 튀겨 나간 나무 부스러기는 아빠가 만드실 때 보다 두 배나 많았다. 내가 만든 칼은 아빠가 만드신 칼만큼은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건 상관이었다. 아빠가 내 옆에 앉아 계셨다는 사실, 그것이 나에게 중요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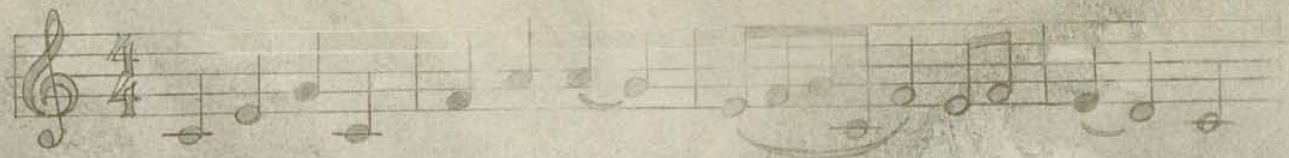
아빠가 휘파람을 불면서 나무를 깎고 계셨을 때, 나는 이따금 환한 미소를 짓고 아빠를 쳐다보며 아빠가 만든 칼과 나의 칼을 비교하곤 하였다.

아빠는 내가 아빠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시고는 싱긋 웃으시며 나에게 윙크를 해주셨다. 나는 기분이 좋았다. 왜냐하면 아빠는 정말 기쁘실 때는 나에게 윙크를 해주시곤 했으니까. 나도 아빠에게 윙크를 해주었다.









# 찬송가에 담긴 소망

아넷트 피 보웬





20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래로 나는 클레이트 가족을 본 적이 없었다. 그 당시 케리 클레이트와 나는 매우 절친한 사이였다. 우리는 부활절에 두 사람 다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케리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나는 케리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녀의 가족이 지금 정신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자녀를 셋이나 둔 케리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인 힘든 시기였고, 그녀의 부친은 최근 뇌일혈로 고생을 하고 계셨으며, 그녀의 모친은 남편 간호에다가 가족 생계 때문에 고군 분투하고 계셨다.

한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겨운 고통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초인종을 눌렀다.

케리가 문을 열고 양팔로 나를 껴안았다. 우리는 5년 만에 만난 것이다. 나는 친구 케리가 마음의 상처로 인해 크게 고통받고 있음을 직감했다. 케리는 너무 아위었으며, 그녀가 나를 껴안았을 때, 나는 실의에 빠진 그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벽에 걸린 그녀의 소녀 시절 초상화 속에서 미소짓는 눈매와는 대조적으로, 지금 그녀의 눈은 그녀가 받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 주고 있었다.

이윽고 케리의 모친께서 나를 맞으러 오셨고, 케리는 그녀의 아이들을 불렀다. 딸 둘에 아들이 하나였는데, 모두가 어여쁘고 잘 생긴 용모였다. 나는 아이들 각각의 얼굴에서 그들의 아빠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었으며, 케리 부부의 이혼이 그들 가족에게 가져다 준 슬픔과 고통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앞으로 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걱정이 되었다.

케리의 부친은 이층 침실에 계신다는 것을 케리가 알려 주었다. 내가 이층으로 올라가 케리의 부친께 인사드리겠다고 했지만, 케리는 부친께서 스스로 내려오기를 원하신다고 알려 주었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내려오시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앉아서 기다리다가 뵙자.”고 말했다.

우리는 여학생 시절에 자주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실에 함께 앉았다. 그러나 오늘은 웃지 않았다. 케리는 재정 문제와 미래를 혼자서 대처해야 하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나는 귀를 기울여 듣기만 했다. 케리는 그 밖에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하였지만,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잠시 후 바스락거리며 계단을 걷는 소리가 들려 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케리의 아버지께서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 오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난간을 꼭 쥐고 계단을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부인이 옆에서 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도움을 거절하였다. 케리 아버지는 마침내 내 옆으로 다가오셔서 나의 손을 꼭 붙들고 힘겹게 말씀하셨다. “아넷트,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 정말 반갑구나.”

케리의 양친께서 주방으로 들어가신 후 케리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네가 여기 앉아서 나의 불행한 이혼 이야기와 우리 아빠가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듣게 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니?”

잠시 침묵이 계속되는 동안, 주방에서 케리의 어머니가 케리 아버지에게 팔 다리 운동을 시키면서 천천히 하나 둘 세는 소리가 들려 왔다. 나는 남편을 돌보는 케리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안해, 부활절에 우리 집에 와서 이러한 일들로 네 마음만 심란하게 했구나.”하고 케리가 말했다.

“괜찮아, 친구로서 당연한 걸. 난 너에게 어떤 도움이나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생각하는 중이었어.” 나는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바로 그때, 케리의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케리와 나는 대화를 멈추고 주방에서 들려 오는 아름다운 찬사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부활절 주일에 걸맞는 더할 나위 없는 찬송가였다. 또한 이 순간에 가장 어울리는 음악이었다.

주님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사람 천사 외치네 알렐루야!  
기쁜 개가 높여라 알렐루야!  
천지 만물 화답해 알렐루야!  
(찬송가, 122장)

케리 어머니가 모든 절을 부르고 알렐루야 찬송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그날의 암흑과 절망이 빛과 희망으로 바뀐 듯이 느껴졌다. 나는 이 가족이 지극히 사랑스런 목자들에게 의해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케리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넌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품안에 있어. 네 아버님도 역시 마찬가지야.”

“알아” 케리는 말했다. 찬송 소리와 함께 우리의 소망이 하늘을 향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렸다. □

\* 가명을 사용함



# 지상의 평화

로버트 이 웰즈 장로  
철심인 정원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셨을 때 천사들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누가복음 2:14참조)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포 이래 2천 년이 흘렀건만 세계에는 평화가 깃든 곳이 별로 없습니다. 몇몇 국가간에는 불안한 상태로 평화가 유지되고 있으며 어떤 나라들의 국내 상황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를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였듯이 전 인류의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평화 역시 현세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산상 수훈을 통해 영적인 평강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화평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받을 아름다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모두 우리가 완전을 향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활용해야 할 청사진입니다. 동시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 주신 온전함과

화평을 얻기 위해 우리가 영원히 노력하는 가운데 반드시 발전시켜야 할 여러 성품과 특성을 알려 주는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님이 그 산상 수훈을 처음 주시던 당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눈을 통해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정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른 봄 오후로 상상됩니다. 미풍 한 점 없는 하늘에는 황혼이 깃들려고 하며 하얀 새털 구름은 청명한 하늘 가운데 미동조차 않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갈릴리 해변에 정박한 고깃배들에는 잔잔한 파도가 밀려와 철썩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 중턱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열성적으로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은 잔디나 바위 또는 이른 봄의 꽃들 사이에 앉거나 섭니다. 구세주께서 그들이 생활 가운데 화평하게 생활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자, 모두 얼굴을 들고 주님을 주시하고 경청하면서 잠잠히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









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마태복음 5:9) 다른 성경 번역자는 구세주의 그 말씀을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은 행복하나니”(영어 신약전서, 제이 비 필립스 번역, 뉴욕: 맥밀란 출판사, 1958년, 9쪽)라고 번역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에 내포되어 있는 강한 의미의 동사 “하다(영어의 의미로는 ‘만들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늘의 축복을 가져 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지역 사회, 이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는 가정에 적극적으로 화평을 조성해야 합니다.

절정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는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압제받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시길 기대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화평을 주셨지만 이것은 외형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화평은 내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베트남 전쟁 기간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국이 승고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에 개입했다고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변하기 시작하여,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 들끓었습니다.

당시 교회 대관장은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역 대회에 참석 중이었던 그분은 국제 뉴스를 다루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리 대관장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귀 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질문이 오해받거나 왜곡될 위험 없이는 대답할 수 없는 하나의 함정으로 인식했습니다. 만일 예언자가 이에 대해 “우리는 전쟁에 반대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 국제 뉴스 담당 기지는 아마 이렇게 논평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종교 지도자가 자신이 속한 교회의 신앙개조를 지지하면서 국가의 정책은 반대하다니!”

한편 대관장님께서 “우리는 전쟁을 찬성합니다.”라고 응답한다면, 그 기자는 “종교 지도자가 전쟁을 찬성하다니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경우든 그 대답은 교회 안팎으로 여론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초

래했을 것입니다.

리 대관장님은 구세주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대한 영감과 예지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전세계 기독교인들과 더불어 우리는 전쟁을 거부합니다. 구세주께서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요한복음 16:3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군사력에 의해서나 국회 의사당 내의 협상에 의해 국가간에 쟁취할 수 있는 평화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계명대로 생활하며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그리스도께 나아 올 때 우리의 생활 중에 갖게 되는 화평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앤사인, 1982년 11월호, 70쪽 참조)

아씨 시의 성 프란시스의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기 위해 주님이 친히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밝음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라]”(갈라디아서 5:22)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대부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느끼는 화평과 위안과 새로운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구세주를 따른다면 우리의 가슴에는 화평이 깃들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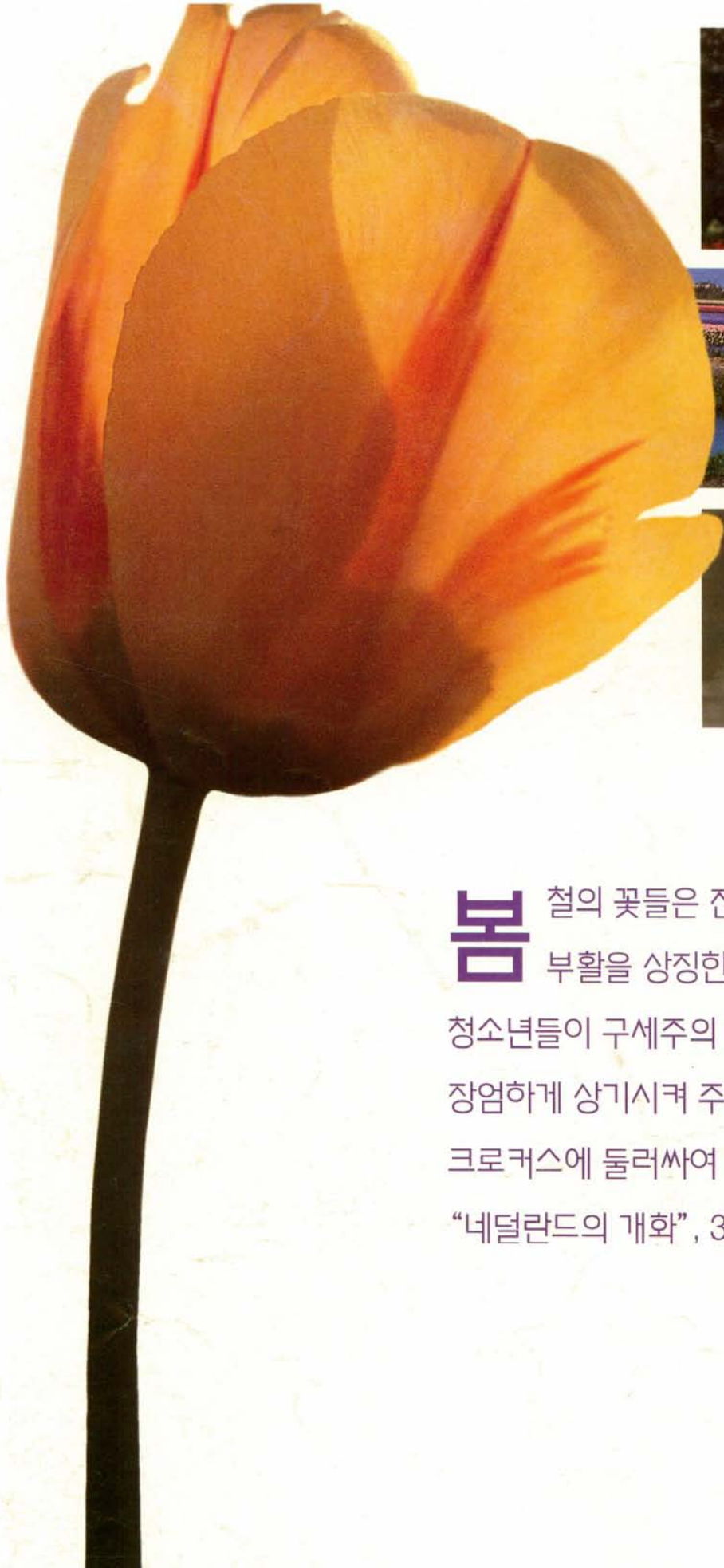




그림: 게리 엘 캅, 모든 병든자들을 고치시는 그리스도, 데이비드 라슨 부부 소장, 해기를 받아서 용함.

부활하신 구세주께서는 주변에 모인 충실한 니파이인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거든 이리로 데려 오라. ... 예수께서 그 앞에 데려온 자를 낚음이 고쳐 주시니. ... 모두 예수의 발 앞에 앉드려 절하며 예수를 경배하였고... (니파이삼서 177: 9~10)





**봄** 철의 꽃들은 전통적으로 탄생과 생명과  
부활을 상징한다. 부활절에 네덜란드의

청소년들이 구세주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장엄하게 상기시켜 주는 튤립과 수선화와  
크로커스에 둘러싸여 있다.

“네덜란드의 개화”, 34쪽 참조